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細窮民十萬
對策을樹立하라

一

現代社會에잇서서 人間生活의最大威脅物은 失業 貧窮 病苦에 지나잡것이 업슬것이다. 資本主義가 發達되고 都市가 膨大하게됨에따라 一面에는 尨大한過剩生產과 富의 蓄積을 齎來하야 上層部의 生活이 急激한向上을 示現하고잇는反面에 他一面에는 그날의 糊口조차 이을길이 漠然한 細窮民이 急激한 템포로 增加되는 傾向을 우리는 日常 目擊하게되다. 失業, 貧窮, 病苦는 現代文明에서오는 宿命的 結果로 三者는 實로 交互的因果關係로 結付되여 失業이잇는곳에는 貧窮이 따르게되고 貧窮이잇는곳에는 흔히 病苦가따르게되는다 이와反對로 病苦가 失業의原因도 되고 따라 貧窮도 나케한다.

特히 小雪을 明日에압둔 今年겨울도 바야흐로 本格的추위로 드러가려하는이때 臨迫한雪寒에對하야 何等準備도업시 大自然의 暴威에 呻吟하지안흘수업는 細窮民이 現代都市로서의 面貌를 具備하엿다고 자랑하는 大京城市內에 얼마나되는가?

二

이제 京城府社會課에서 調査한 統計에 나타난 數字에依하면 十月一日現在의 失業者가七千一百八十四名 細民이一萬九千一百九十五戶 그人口는六萬七千四十名이며 窮民은 三千一百七十二戶 그人口는 一萬一千一百九十一名이라한다 이것을 合하면 九萬八千二百三十一名으로 이에 乞人 不良住宅住民까지 加하면 其數 十萬을 突破하고도 남음이잇슬것이다 이것은 京城人口를 六十七萬으로 算하면 細窮民이 全人口의 六分之一 乃至七分之一이라는 可驚할 數字를 示現하게되다 그리하야 京城市民 일곱名이 채모히지못해서 그中에한사람은 細窮民에 끼이게되니이얼마나 悲慘한現象이냐?。

三

當局에서 定義한바에 依하면 所謂細民이라는것은 第三者의 扶助가 업시는 生活을 維持하야나갈수 업는者를 意味한다 詳言하면 國民中 極히 貧寒한者를가르처 細民이라하고 全然依支할곳이업시 乞食露宿하는者를 乞人이라고한다 그리고 細民과 乞人中間에 잇는者를 窮民이라고하는데 勿論이 分類는 生活水準이 比較的 低級한 朝鮮社會를 對象으로한만큼 다른先進社會를 標準한다고하면 其數가 훨신 만흘것을 像想할수잇다 다시이것을 昨年統計에 比較하면 失業者는 비록 二百九十名이나 減少되엿다할지라도 細窮民의總數는 六萬餘의 激增으로 實로 二倍半以上의 增加를 示現한데 다시 놀라지 안흘수 업다。

四

이와가티 細窮民의 數爻가 엄청나게 增加 되것은 京城府區域의 擴張으로 從來 細民階級의 居住地이엿든 近郊 一帶가 府에 編入된 탓도 잇슬것이나 最近 天災로 因한 農村의 窮乏과 都市計畫 實現 及 交通機關 增設에 伴하는 勞働力 需要의 增加도 그 重要한 原因일것이다 그럼으로 京城의 市街計畫이 實現되야 이에 京城의 細窮民은 增加의 一途를 밟을것은 一的事實이다. 失業과 貧窮의 根本的解決은 現社會制度下에서는 不可能한 條件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其根本原因의 除去를 主張하지는못하나마 그緩和策이라도 講究하야 爲先 當局對策으로 職業紹介機關의 機能을 擴充하야 失業者의增加를 緩和할것과 細民保護機關을 擴充하야 細窮民을 病苦로부터 救할것과 細民住宅地區를 設하야 住宅難이라도 緩和하기를 當局에 要請하는바이다。

陸軍態度緩和 懇談會出席應諾
政黨側에誠心誠意가잇다면
雙方感情融和가問題

【東京電話同盟】陸相出席問題에關한 近衛富田兩院議長斡旋工作과 此에對한 政府側의 若究을 斯하야 藤沼書記官長으로부터 呼訴하게되여 寺內陸相은 陸軍大臣으로 政府의 要望을 傳하고 軍部側도 政府對政黨間의 抗爭經緯와 政府의 眞意가 存在한바를 漸次諒解하고 一、政黨側이 誠心誠意로써 懇談을 希望한다면 陸相도此에 應諾할수잇다 一、懇談會는 議院制度調査會와는 全然別個의것이라하고 陸相의 言明에 疑問이잇는것만을 懇談할것 이라는 前提下에 懇談會에出席 意向을示하엿다 따라서 藤沼書記官長은 그結果를 齎來하야 同日午後二時 富田議長을 訪問하고 政黨側에對한 陸相出席을 傳하야 懇談하엿다 如斯히 陸相出席의 懇談會는 開催할수잇슬 豫想이 서게되여 廣田首相도 愁眉를 펴게 되엿스나 政黨의 態度에對한 軍部內의 感情은 極히 硬化하여잇고 또軍部의 議會制度刷新要求에 對한 政黨側의 不滿은 深刻함으로 懇談會開催에 依하야 어느程度까지 兩者間의 感情을 融和하고 摩擦을 減殺할지 자못注目된다

이에 出席을 承諾하고 左와如히 말하엿다
調査會에는 全然 出席할意思가 업스나 陸軍의 眞意를 明白히 하야 政府도 그를 爲하야 席을 設置하야 說明을 希望하는 者가 잇고 政府도 그를 爲하야 出席할것을 希望한다면 出席할것은 이미表明하엿다 이는 自己心境은 全然變치안는다 時局이非常한此際 政黨과軍部가對立항과가튼것은 全然避할것이여서 相互間事態를惡化하게하는 言動은 어데까지던지 避치아니하면아니되다 自己는 陸軍의所信하는바를 說明할것이며 政黨과理論鬪爭을할意思는 毛頭도업다 爲先閣議에서 表明한三項目을原則으로할것이데 現在의事態로는 議論을試할생각은업다

希望한다면 所信說明
寺內陸相談

【東京電話同盟】寺內陸相은 閣議散會後 陸相官邸에서 懇談會 出席問題에對하야 다음과如히 말하엿다 懇談會를 開하지안코는 解決할道理가 업스니 同四時會見을 終了하엿는데 藤沼書記官長은 首相에게 이結果를 報告하엿스나 懇談會의 日程은 政友會의 正式回答을 기다려 決定될터이다

十四、五日頃에開催될 豫定이다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의 櫻內總務는 二十日午後四時半本部에 添田·寄崎 山崎 工藤의 四議員을 招致하고 懇談會參加에關한 政府의 回答을 傳한後 富田議長 藤沼書記官長과의 會見顚末을 報告한後 民政黨側의 希望이 全部容認되엇스므로 今日政府의 申出에對하야는 異論업시 承認하엿다 는言을 述하고 黨幹部要求하엿다

【東京電話同盟】懇談會問題에關한 政府의回答을 接한安藤政友會幹事長은 議長官舍에서 協議한後 直時東京의 中島 松野兩總務를 本部에 招致하고 協議하엿는데 懇談會에對한 政府의 요망을 容認하고 委員을 出席시키기로 應諾을 決定하고 鈴木總裁의 承認을 求하야 午後六時此旨를 富田議長을 通하야 政府에回答하엿다

政民兩黨모다 懇談會出席決定
政府政黨間諒解成立

【東京電話同盟】陸相出席問題에關한 富田議長 藤沼書記官長 櫻內民政黨總務 安藤政友會幹事長의 會見은 二十日 午後 三時半부터 議長官舍에서 行하엿다 席上 爲先 藤沼書記官長으로부터 政府의意向으로

一、調査會總會에서 廣田首相으로부터 過日來의 問題에對한 經過를 明白히할것

一、非公式懇談會에는 政民兩黨의 要求대로 貴衆兩院選出委員을 出席시겨開催할것

一、또希望에依하야 兩院에所屬치안흔 他委員參加도 拒絶치안흘것

一、懇談會席上에서는 陸相으로부터 一一히 質疑에 答하고 事件自體가 憲政本義에關한 重大問題이므로 質疑應答의 時間은 充分히할것

一、그順序及 日程等은 書記官長에게 一任할것

의 數項을 提議說明하야 諒解를 求한데對하야 櫻內民政黨總務는 黨의要望과 合致한다하고 卽時應諾을 表하엿스나 安藤政友會幹事長은 政友會에서는 懇談會를 開하기直前에 總會를열도록 希望하고잇스므로 懇談會後에 調査會를 여는데對하야 黨의意向

行政機構改革問題
軍部案의主旨와 改革意見의全貌
(四) 金翰容

軍部兩相의 共同提案으로 政府에 提出된 行政機構改革에 關한 軍部의 共同意見書는 提出當時에는 이것이 公表되지 아니하엿스므로 新聞報道를 通하야 그輪廓을 엿볼수잇는 程度에 不過하야 그全貌는 到底히 알길이 업섯든것인데 去十一月九日에 陸海軍當局談으로 드디어 發表되어 이제는 一月際然히 그提案의 主旨를 알게되엿다。이제 그全文을 再錄함은 長湧하기로 이를 要約하건대 中央行政機構에 關해서는

一、國策統合機關을 樹立하고 情報委員會를 改組强化하야 本機關에 統合하며 이機關의 長官을 閣議에 列席케함을 得함

二、人事行政統制刷新에 關한 機關을 創設함

三、外務、拓務兩省을 統合하야 對外政策을 統制强化함

四、農林、商工兩省을 統合하야 產業行政을 合理强化함

五、文部省에 內務省神社局管掌事項을 統合함

六、內務省을 改組하야 土木行政의 一部를 移管하고 衛生에關한 機關을 統合强化함

七、航空、鐵道、遞信行政을 統合함

八、各省의 整備改善

의八者이며 地方行政에 關해서는

地方行政機構의 整備改善及國運의 進展에 伴하야 地方行政制度를 刷新할 것이라고하엿슴은 그러나 이오 議會에 對해서는

國運의 進展과 議會의 現狀에 鑑하야 議院法及 選擧法을改正하야 議會를 刷新할 것이라고하엿다。

以上이 軍部案의 大綱인바 右三者의 提案內容으로보아 軍部가 企圖하는 機構改革이 能히 그 計畫하는 行政機構改革에 있서 그 直한 根本的 改革을 行치 안허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이 改革案은 이것이 업슬수가잇다。即 이제 內閣制度의 變遷을

잠간回顧해보건대 明治維新時代、即明治初年時代의 그것은 結局하고 所謂 責任內閣制度가 成立된것은 明治十八年十二月의일인데 爾來五十餘年동안에 內閣官制를 爲始하야 各省官制通則、各省官制等에 幾多의 變改가 잇섯다고하나 거의 固定化되어잇섯든것이 事實이니 假令 內閣官制의 變革이라고 볼것은 明治廿九年四月 第二次伊藤內閣時代에 拓務省을 設置하엿다가 同卅年九月 第二次松方內閣時에 이를 廢止한것、大正九年五月의 原內閣時代에 鐵道省을 新設하고 同十四年四月의 加藤內閣時代에 農商務省을 商工 農林兩省으로 分離하고、또 昭和四年六月의 田中內閣時代에 拓務省을 다시 設置하야 十二省으로한것等인데 이것으로보아 省의 廢止는 拓務省뿐이오、其他는新設이며、內閣制度의根本的變革을 한적은 업섯스며、各省官制通則도 昭和十九年一月에

公布되었以來 十餘回에 亘하야 部分的改正이 잇섯스나 이것은 全혀 事務便宜를 圖한것과 議會政治圓滑을 期하기爲한것及 數人의 猶官運動에 備하기爲한 政務官制度存廢에關한것으로서 參政官、參事官政務次官、參與官等의 制度를 或은 設置하고 廢止한는 等의 것이어엇다。다음 各省官制에잇서서는 時代의 變遷에따라 그時代에 適應하기爲한 新局增設이 잇섯스며、그以下의 課의 廢合等은 勿論 廣汎하게 變改되어왓다。以上의 諸變遷도 勿論 行政機構의 改革임에는 틀림이 업스나 今日에잇서서 要求되고잇는바와가튼 廣汎한 範圍에 亘한 根本的改革은 勿論 아니엇스며 從來의 諸改革은 財政的整理에 重點을 置하엿든것인만큼 그意味와 趣旨에 잇서서 現在의 그것과는 全然 다른것이엇다。그러므로 지금에 中央地方을 通한 全面的 또는

는 積極的 改革이 要望되고잇는 根本原因은 亦是「時代」에 잇다고 할수박게업스나 五十年동안 固定化한 行政機構는 非常時日本의 國策을 遂行하기 爲해서는 時代에適應한 新機構로 改組되지안흘수업게되엿것이다。이러意味에서 軍部意見書에는 特히 中央行政機構改革에關하야 그提案의 主旨를 添付하야 이러한 時代的意義를 闡明하엿다。거긔에서 가로되

國防의强化、海外發展、產業의振興等 國策의 決定運用의 綜合統制를 期할은 世運의 進展、內外의 情勢에 鑑하야 最緊要事에 屬하나 現行中央行政機構로서는 各省의 對立、不統一、或은 機能의 不充分等 右目的達成에 遺憾이 不少하다고 認定됨으로써 左의諸制度의 整備改善을 行하야 國政의 統制强化를 期할것을 主眼으로함 이라고 하엿다。

政府軍에軍需品 輸送阻止를通告
프랑코將軍이不干涉委員會에
蘇聯船武力干涉豫想

【倫敦十九日發同盟】獨伊兩國政府의承認에依한 叛軍政權의 國際的地位는 顯著히强化되게되엿는데 總統프랑코將軍은 十九日英、佛其他不干涉委員會參加各國政府에對하야 外國으로부터 政府軍軍需品輸入觀察함에 鑑하야 叛軍으로可能한一切의手段을다하야 바르세로나方面에 軍需品輸送을阻止할旨通告하엿다고 讀賣右結果現在西班牙政府를 支援하는 蘇聯汽船에對한 武力干涉이 當然豫想되는데 英國、佛國兩國政府는 地中海西部에잇는 險惡한事態를 解消하기爲하야 近近中에 商議를開始할意向인模樣이다

르세로나、바렌시야、타르코나、알리칸테、카르타헤나等諸港을 抑押하고 政府軍에 武器供給을 杜絶시키고자 近近海陸으로부터 諸港에對하야 砲擊을開始할것이라하며 이미 바르세로나、바렌시야在住의獨逸人、伊太利人에는 退去命令을發하엿다한다 萬若此等東部諸港에對한 砲擊이 開始되게되면 外國船의 寄港은極히 危險함으로 當地 佛國海軍當局은 右危險에對하야 防備를 促하고 共同對策을協議하기로되엿다

叛軍、政府軍에의 武器輸入港砲擊

【말세이유十九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政府軍의 武器陸揚地인 바

伊政府令-리氏를 新政權代理大使에

【羅馬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西班牙叛軍政權承認에 伴하야十九日 마드리드駐劄 大使館參事官 令-리氏를 부르고스新政權代理大使에 任命하얏다

外地繰入金配定
朝鮮은五百萬圓
總督府當局은難色

外地로부터 一般會計에 繰入金은 去十八日外地拓務省의 聯合會議에서 一千二百萬圓까지 增加하기로되엿는데 此에對하야 大藏省은 一千五百萬圓의 繰入을 主張하고잇는 現狀임으로外地側으로서는 벌서 一千二百萬圓의 繰入을 豫算치안흐면 아니될 立場에 서게되엿는데 配當을 行할 豫定은 昨年度同樣의 配當率로하더라도 朝鮮은 大體五百萬圓의 負擔이 擴張되여 그決定은 昨日問題로되엿다 그러나 波東中의 大野政務總監, 林財務局長은 如上과가튼點에 가장苦心하는것으로 推察되며 多大한關心을가지게되다

一、昨年의 繰入金은 百九十萬圓이엇는데 明年度五百萬圓을 繰入하게되면 三百十萬圓의 增出增을 招來하게되는데 半島治水對策을 비롯하야 各種新規事業이 山積하여잇스므로 波東前編成한 明年度豫算의 新規事業에 多大한 影響을 미치지

二、租稅의 一人當負擔으로 觀한 朝鮮의 負擔이 重하다하는것은 爭치안코 今回繰入增額은 非常時財政이다 따라서 이繰入金은 恒久化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十二年度以後의 大藏省方針은 如何한가 此根本決定을 보지안흐면 兩者間에 根本的意見의相違를 生하지나 아니할가 자못注目된다

叛軍政權、英國에 바港封鎖를通告

【倫敦十九日發同盟】西班牙叛軍政權總統프랑코將軍은 十九日英國政府에對하야 叛軍政權은 西班牙政府軍에軍需品密輸를阻止하기로決定하고近近바르셀르나港封鎖를斷行한다」는旨를通告하엿다는 批評을 避하고잇는데 叛軍의 同通告에對하야 英國官邊에서는 批評을 避하고잇는데 叛軍이果然實際로 西班牙의東海岸을 封鎖할수잇슬는지 問題라하고잇다 內亂勃發以來英國政府는 마드리드政府及 부르고스政權에對하야 警告하고잇는것가티 西班牙領海內에서 英國商船에 何等危害를 加하는境遇에는 英國政府로서는 斷乎한處置를取할이라 推測되다

青島紡績怠業 日清紡績에도波及

【青島二十日發同盟】當地紡績怠業은 日清紡績에도 波及하야 二十日午前六時交代時間에는 同紡績工數百名은 機械의運轉을 中止하고 不穩한形勢를 示하엿스므로 急行한 中國官憲의 調停에 依하야 同七時半復業하엿다

關東軍管下部隊長會議

【新京廿日發同盟】關東軍管下部隊長會議는 二十日午前九時關東軍司令部에서 開催、植田軍司令官、板垣參謀長으로부터 對中對蒙의 重要案件에 對한 訓示가잇섯다 今次의 內蒙軍事行動에는 關東軍으로서는 何等關與치안코나 深甚한 關心으로서 그進行을 監視하고 同時에 內蒙軍의 防共自衛行動에 對하야는 諸般의 好意를 가지고잇다

蔣介石氏洛陽에歸還

【上海二十日發同盟】十九日濟南에서 韓復榘氏와 重要會談을 行한 蔣介石氏는 同日午後二時濟南發 同五時半洛陽에 歸還하엿다 는見解下에 各種協議를 行하고 正午一日散會하고 午後도 續行할터이다

本社參觀

◆陸北榮州公普校生八十名 池田清祐氏引率下本社見學

夕刊後市況 二十日

◆大阪 短期 新米

大新	七二三〇	(不變)
鐘新	一八〇〇〇	(一〇低)
日產	八三五〇	(不變)
東新	一四二〇〇	(三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九二〇〇〇 先限八九五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六六七〇 先限六四一〇

朝鮮二官制改正內容

【東京電話同盟】二十日閣議에서 朝鮮總督府關係官制一部가 左와如히改正되엿다

一、林業試驗場官制中改正
새로 漆, 탄닌, 樹脂, 樹實의 利用及品種改良增產, 林產副業品의利用에關한調査試驗을 開始하기爲하야 技師一名 技手一名을增員함

一、水產試驗場官制中改正
北鮮에서 水產品試驗調査를爲하야 淸津에北鮮出張所를 設置하고技師一名技手二名을增設함

綏遠戰線無異狀
蔣氏南京歸還
對日根本方針決定乎

【上海二十日發同盟】中國側情報에依하면 目下洛陽에잇는 蔣介石氏는 綏遠方面의 軍備配置의 完成을 기다리며 近近一旦南京에 歸還할模樣이다 卽蔣介石氏는 洛陽에 入城한以來 北上하야 隴海線一帶에 集結한 中央軍은約二十六萬에 達하고잇는데 此等軍隊는 山西軍의 綏遠出動을 기달리며 此外交替하야 山西入京하기로 決定되여잇서 그移駐도數日中에 完了될 模樣이다 또山西省內에잇는 山西省內復東北軍의 一部는 이미綏遠에 移駐를마치고 또山西의 閻錫山, 山東의 韓復榘氏는 모다蔣介石氏結 中央擁護를 誓約하엿스므로 蔣介石氏는 大槪後方의 對內整備를 爲하야 南京에 歸還할것으로 推測되다 中國側消息通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南京에서國民政府首腦部會議를 召集하고 綏遠의 軍備配置 山東、山西의動向等을 詳細說明하고 對日和戰의 根本方針을 決定하야 川越大使와 會見하고 中止되엿든 日支交涉에 結果를지으려할것이라 推測한다

上海龍業天津에波及
公大紡績職工動搖

【天津二十日發同盟】上海에서 發端한 紡績龍業은 天津日本人紡績에도 波及하야 公大(鐘紡系) 第六第七兩工場에서는 二十日朝來尖銳分子의 煽動으로 職工이 動搖하야 工場內外에 宣傳傳單이 撒布되엿다 또寶成、裕大兩紡績도 形勢不穩하다

◆公賣公告
善山郡 ... 昭和十一年十二月十六日 善山郡廳

百補丸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特許 實費
どりこの
病間安에 病中에
間食代身에 來客接待에

冬物 名古屋市東區千種通今池電停前 東洋一大商報 無代進呈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電話東四八二九番 振替口座名古屋二八九二番

大景品付 자미난 이러나기 (懸賞)
大景品 SP 眞珠入 부라치나반지
2 5 8
靑年時代社

景品附特賣中
左記를빠짐업시進呈
◎樽詰 (十六立) 에 特撰クリーム·ホーサン石鹼參個入 壹個
◎罐詰 (八立) 에 特撰クリーム·ホーサン石鹼參個入 壹個
◎壜詰 (三立) 에 特撰化粧石鹼 壹個
一、區域 朝鮮全道
一、期間 昭和拾壹年拾二月二十日迄
香川縣 小豆島 丸金醬油株式會社
マルキン醬油

新富座
十二月二十日부터 ...
大東 上(二十日부터 ...)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유리열쇠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血의絕叫하는曠野
時代劇 堀太郞笠
新堂町 新富座

團成社
十八日封切大興行
◇유니버살 ... 小公子
◇사랑의彈丸
美人自叙傳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二一五四
十二月二十一日밤부터 靑春座公演第三週 『日本名作週間』全員總出
❶月給날 一幕二場
❷자식을죽이기까지 一幕
❸아버지돌아오시네 一幕

若草映畫劇場
十七日ヨリ六日間
佛グレエ·フイルム特作日本版 ゴルゴタの丘
▲朝の並木路
▲極彩色パラマウント ニュース漫畫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光武劇場
黃金町
新興キネマ ... 半島의舞姬

樓上町에覆面强盜 外套와金時計奪去

大膽한犯行에警察도啞然失色

犯人은쏜살가티潛跡

년말을압두고 시내각경찰서에서는 경찰부의 지휘미테 벌서부터 비상경계의 전초전으로비상경색까지 계속하야 년말에흔히 발생하는 강력범의 발생을예비코저 철통가튼 경계진을펴잇는이때에 이경계망을뚤코 이번에는종로경찰서관내인 루상정(樓上町)에 또복면강도사건이 발생하야 경찰을대경실색케하고잇다 이십일 오후 일곱시삼십분쯤 부내루상정사십오번지 김덕영(金德泳)(二三)의양모 김씨(金氏)(六七)가혼자서 돌에서일을하고잇슬때 대문을여는 소리가나더니 검은것으로복면한괴한하나이 식칼가튼것을 그의목에대고 돈을내라고위협함으로 돈이업다고대답하매 괴한은 그를안방으로끌고들어가서 샅샅치방세간을 뒤저본후에 시가약사십원가량되는 금시계한개와 역시 사십원가량되는 외투한벌을 강탈하여가지고 쏜살가티 어대로인지 자취를 감춰버렷다 이급보를바든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송강(松岡)서장이하 전서원이 총출동하야 경찰부에 보고하고 시내각서에 수배하는한편 물샐틈업는수사진을 치고 맹렬한활동을개시하엿다

被害家의內情을 잘아는犯人인듯

倉猝間에覆面임으로人相不明 市內警察은總動員

피해자의집에는 집안식구가때마침 모다밧게나가고 전긔김씨라는 안늙은이가 혼자서 집을직히고잇슬때에 별안간 복면한괴한이침입한관계로 범인의인상과 변령기타에관하여는 상세치못하나 범인은 나이약 이십오륙세 가량으로 점은 것으로 복면하고 약 한자가량되는 식도가튼칼을 가젓다고한다 그런데 로인이 혼자서 집을직히는곳에들어간점, 기타 여러가지 점으로보아 범인은 피해자의 가정내용을 잘아는자가 아닌가 추측하고 경찰에서는 그방면을 엄탐중이라는데 이수배를바든 시내각경찰서에서는 민활한형사십사명이 응원자로 출동한외에 경찰부수사게까지 총출동하야단숨에 범인을 잡으려고 물샐틈업는수사진을 펴고잇다

地下의낡은歷史를 파내서 새로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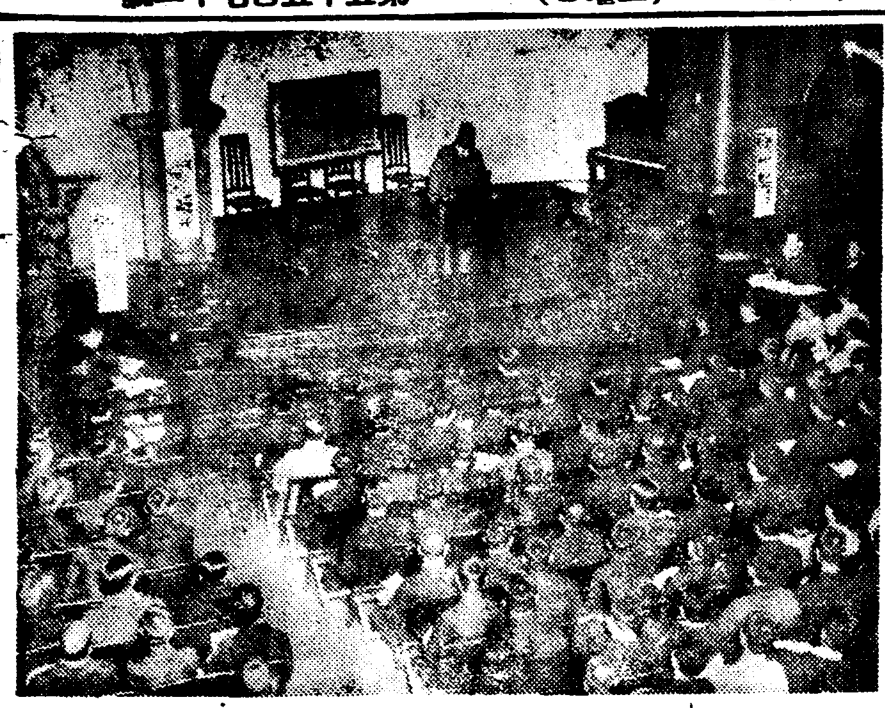
江西高句麗古墳壁畫를撮影

龍岡各古塚도撮影

【平壤】 동양고고학계에서는 대화법룡사(大和法隆寺)의 벽화다음의시험으로 사계의시청을집중한가운데에서 경성제대(京城帝大)사진부의손으로 원색(原色)사진촬영에 착수햇든 강서(江西)고구려고분(高句麗古墳)의 원색사진은 벌서일천매의 원판(原版)을 사용하여 대체완성을보아 경성에발송햇는데 이것이전부현상되면 일천오백년전에 우리의 선조가 그린웅대한 최고의벽화가 원색그대로표현되여 보는사람들을 놀라게할것이다

그런데 경성제대사진부에서는 강서고분으로 이사업을 중지하지안코 명년에는 고구려시대의 최고의낡은 력사를 가지엇다는 룡강군대대면매산리(龍岡郡代岱面梅山里)에 소재한 감신총(龕神塚)성총(星塚) 대총(大塚)등과 지운면화산리(池雲面花山里)에소재한 쌍영총(双楹塚)등의 찬연한벽화들도 강서고분의 벽화처럼원색사진을 촬영하기로되엿다 벽화의 원색사진을 촬영하는때에는 강력의전지를 필요로하는데 명춘에 진지동(眞池洞)에전등이장치되면서 이고분안설치되는장소까지 송전을하게되므로 이고분에도 전등의영구장치를하여 원색사진촬영에 지장이업게 할뿐아니라 진지동명물수박때나 또는 감자철대를하는때에 "하이킹"을 겸하여 고분을 어느때에나 밝은전등미테 서볼수잇도록 하기로되여 여기에대한 후원회까지 조직될터이다

그리고 이번의 원색사진촬영자금은 선대복전회(仙臺福田會)의장학금 삼천원으로 충당하게되엿다한다



그런데 경성제대사진부에서는 (사진은 강연회장)

高句麗의遺跡을

歷訪하는巡廻路着工

【平壤】 고구려시대 룡강의 대예술전당 강서고분의 벽화가 원색사진으로 만드러젓다는것과 명춘에 룡강군하에 산재해잇는 고구려고분총의 벽화를 역시원색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되엿다는것은 별항과갓거니와 대성산(大聖山)산록에서 금주발굴된고구려시대의 고분이라는 대동군림원면(大同郡林原面)에소재한 사신총(四神塚)은 그벽화의모양이 강서고분과는달라 필치의웅장한점과 색채의 특이한점이며 구상의야릇한점에잇서서 훨신능가하고 잇다함은 루보한바이섯거니와 명변을기하여 이고분에도 전등장치(電裝)를하고 현재의 유람도로(遊覽道路)에 련결식혀 북방의강국인수(隋)를 손쉽게 격파하든 고구려의강군이 옹거하고잇든 주위 사십여리의 대성산(大山城)을 일주할수잇는 탐승도로를 만들계획을세우고잇다 이계획이 완성되는때에는 모란봉공원을 뒤에 두는 유람도로를 지나 주암산(酒岩山)을 둘리어 세계고고학계의일대위인인 사신총(四神塚)외의사오고분을 구경하고 다시 산성에올라옛날의 고구려의 우리선조가 웅대한 경륜미테서 만드렷든 대산성의 자취는물론 군고(軍庫)며 성내의 만일을위하여서 또는 관상용으로서 만드럿든 구십부련지(九十九蓮池)의 승경을 낫낫치보고 다시 광법두타(廣法、頭陀)의 고찰에서잠시다리를 쉬이고 점심을먹은후 상성에서 나려와 그시대의 호화와 존엄을 마음껏 뽐내이고 자랑튼 고구려의 안학궁(安鶴宮)옛궁지를 둘러보고 도라올수 잇는"하이킹"도로를 수립하고잇서 평양시민은물론 외래객에게까지 큰긔대를 던저주고잇다

世專基靑主催 醫學講演盛況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학생기독청년회문예부(世專基靑文藝部)주최 봉사학예부후원의 제십일회 통속의학강연회(通俗醫學講演會)는 예정대로 이십일오후일곱시부터 열렷는데 정각전부터 남녀청중이 물밀드시모혀들어 장내는립추의 여지가업시 초만원을 일우운속에 순서대로 어비돈(魚조敦)씨의 「장질부사에대하야」 심호섭씨의(沈浩燮)「비타민에대하야」 리영준(李榮俊)씨의「성홍열에대하야」라는 강연이잇슨다음 아홉시반이지나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 (사진은 강연회장)

東으로!東으로!

밀려나는官有施設

農事關係의諸施設을移轉코 京城女師校도나간다

시내룡두정(龍頭町)에잇는 경기도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과잠업취체소(蠶業取締所)와 제一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는 경성부구역의 확장에따라 모다주택지에 적당한곳이므로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교외(郊外)로 옴기기로 결정하고 그후보지(候補地)를 구하는중인데 그것이 옴겨감에 따라 원잠종제조소자리는 현재 시내수송정(壽松町)에잇는 공립경성녀자사범학교(京城女師)를 신축하게될터이라한다

그러고 농사시험장자리는 그토지의 대부분이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의 소유이므로그것은 전부돌려주게될터이고 남어지 도유지(道有地)약간은 방매하게될 모양이라한다

無錢取食한後自首

전과이범이 냉정한 세상에 번밧되여 동모의 돈을 훔처가지고 조선까지 건너와서 돈이 다 떠러지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고 정원을 자동차에태워가지고 본정서(本町署)로와서 자긔의 과거를 다 러러노코 자진하야 류치장으로 드러갓다—강산현(岡山縣)출생일본내지인 삼본풍(森本豊)(二一)은강산시(岡山市)에서 동모의 도록십원을 훔처가지고 경성에 와서 전부 탕비한후 십구일 오후 일곱시쯤에 종로(鍾路)「빠—뽕아미」에서 팔원오십전어치술을 먹은 다음 정긔와 가리본정서로 달려와서 태연자약하게 자기의과거를 말하엿다

×××××××××××××××××××××××××××

注目되는地主의態度

×××××××××××××××××××××××××××

咸慈線用地買收에 收用令을遂適用

每坪一錢부터十九錢으로裁決

廿日發表、廿五日實施

【咸興支局電話】 장진강수전회사에서 매수중에잇는 함자선도로용지(咸慈線道路用地) 문제는 그동안 지주의 요구하는 땅갑과회사측의론가하는 땅갑사이에 큰차가 잇서서 오래동안 문제에문제를거듭하야 오든바 마츰내 그소용되는 일만이천평의지주이십이명과의 매매교섭은 거의절망상태에 빠져섯고 토지수용령을적용키로하야 그동안함남지사가재결중에잇든바 드디어지난십구일까지 재결을마치고 그결과를 이십일로써 발표하엿스며 그표준이될만한 토지가격은 다음과가티 밧(田)은 십등에서, 십삼등까지 대지(垈地)는 등외로하고 림야(林野)로난호엇다

一、田(밧)十等十七錢(每坪에)

〃 十一等 十一錢 〃

〃 十二等 九錢五厘 〃

〃 十三等 八錢 〃

二、垈地(집터)等外十九錢 (每坪에)

三、林野 每坪에 一錢

그런데 이상 함남도지사의재결한 토지가격은 장진수전회사에서 지주에게 직접매매를교섭할때에 선명한 땅갑에비교하야 밧에잇서서 일전이비싸고 대지에잇서서는 칠전이나비싸고 또장진수전회사에서 제이저수지용지를 매수할때의 땅갑과는동일하나 다만 대지갑에잇서서 칠전이 놉다한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함남도지사의 사정가격은 현재매매교섭중에잇는 동회사의 제이저수지(第二貯水池)용지에는 표준가격으로 될것이라하야 매우주목되다 그런데 지주이십이명의 주창하는 땅갑은 대중이업스나 대세로보아서 바른땅평에 삼십전내외 오십전내외 안가 적당한시세라하겟다하며 일호로 지주들이 어떠한레도를가지게될는지는 의문이라한다 그러나 함남도당국에서는 관계지주들의 승락이잇고 업고간에 오는이십오일에는 이미상에 발표한 땅갑으로써 토지수용령을 적용하야 우선일만이천평을매수할작정이라한다

今日

日時 十一月二十一日(土)午後一時

場所 大峴町梨花女專體育館

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

第一回戰…A培花對開城好壽敦 第二回戰…元山樓氏對咸興永生、梨花對A의勝者 (入場은招待券所持者에限함)

主催 梨花女子專門學校 後援 朝鮮日報社

藥專辯論部에서 南朝鮮巡廻講演

경성약학전문학교 변론부에서는 이십이일 경산(犬山)효수인을출발 리학단(李鶴團)군외 다섯학사람이 남조선지방에 강연려행을 떠날터인데 도중대구와제사회초대로 이십이일에는 오후일곱시반부터 대구공회당에서 제일회 변론대회를열터이라한다 그런데 대구는 조선에서큰 약령시(藥令市)인만큼 약학에관한 강연은 매우성황을 이룰것이라고 예측된다한다

巡回健康相談 八

경성체신분장국(京城遞信分掌局)에서는 이십일부터 인천건강상담소(仁川健康相談所)소태의사 小澤[illegible]를 다음가지에 파견하야 간이보험가입자(簡保加入者)에게 순회건강상담을 하기로되엿다한다 ▲二十日 金谷▲二十一日 加平▲二十二日 楊口▲二十三日 麟蹄▲二十四日 洪川▲二十五日 橫城▲二十六日 原州▲二十七日楊平

生活難自殺未遂

二十日에兩件發生

생활란을비관하고 자살을도모한 두사나이—부내중학정(中學町)일백사십번지 조회준(趙熙俊)(三三)은 이십일오후일곱시쯤 자긔집에서 죽으려고극산트닌을 만히 먹고고민하는것을 그집사람들이 발견하고 곳견지정(堅志町)견지의원에 데려다가응급치료를 시킨결과 생명은건지리라는데 원인은 생활난을비관하고 자살하려든것이라한다

◇…이십일 오후네시삼십분쯤 부내와룡정(臥龍町)일백륙십일번지조남룡(趙西龍)(二一)은 자긔집에서"칼모친"을만히먹고 신음하는것을 그집사람이 발견하고 수송정(壽松町)전일의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시킨결과 그도역시 생명은건지게되엿다는데 그도생활난을 비관한끄테 자살하려든것이라한다

商品券詐欺犯

요사히상품권사기(商品券詐欺)가 시내각처에서 빈번하야경찰의 신경을 초조케하는 새로운 현상은 주목을끄으는 바이다 십구일 저녁일곱시 반쯤되어 본정이정목 구십이번지 명치제과회사(明治製菓會社)에전화로대화정(大和町)이정목 모통이로십 원짜리 상품권을 빨리보내라는 자가잇서 그회사주인이 점원에게 식혀 보내엿드니 과연나히이십오륙세되는자가 낫하나 그것을 밧고 십이전을점원에게 주며다배를 사다달라고하고 그틈을타서 도망질하엿다 소관본정서에서는 시월초순이래 대화정금사(大和町金舍)를 무대로하고 빈번한 상품권사기를 한자와동일범인으로 단정하고 엄탐중이다

商品券詐欺漢

마츰내發覺되어被捉

市內各百貨店에被害不少

본적을하관시서정(下關市西町)상정목에두고 시내관철정소화려관에투숙중인 개월희구웅(皆月喜久雄)(二六)은 상품권(商品券)을 사기하려다가 발로되여 체포됨을따라 구악까지 전부탈로되엿는데 그동안 시내각처에서 상품권을가저오라고하야 교묘한수단으로점원을속인자가 바로이자인것이 판명되엿다 그런데 이자가 체포되던때를 드르면 이십일 오후 여덟시 십분경에 시내황금정일정목 류상회(柳商會)에 전긔개월이가 차저와서 환선(丸善)상품권 이십원짜리를 사달라함으로 그주인은 수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변매매를 하면서 뒤로이사실을 본정서에 고발한 결과 순사가 쫏처와서 현장에서 무난히 체포하야 본정서로 압래취조한결과에의하야 개월은 화신(和信)을 비롯하야 삼중정 명전등시내각백화점 점원을 속여서이십원내지 십원의 상품권을 사취한사실을 전부자백하엿다

超特急"아까쓰기"

試運轉成績良好

이십일오전일곱시반에 경성역을 떠난 경성부산간의 초특급렬차 「아까쓰기」는 예정과가티 동일오후두시십오분에 (즉여섯시간사십오분)도중무사히 부산에도착하야 이번의시운전은 비상히조흔성적을 어덧다하며 오는십이월일일부터는 계속하야 운전하기로되엿다 이로써 국제적(國際的)으로 거리를 축소시킬뿐아니라 국제가로에잇서서 다리(橋)가되는 조선에서의 중대한사명을 마튼것이「아까쓰기」라한다

京城師範學藝會

廿二日午後零時半부터

경성사범학교에서는 오는이십이일(일요일)오후령시반부터 오후네시반까지 사범학교생도와 부속보통학교아동과 부속소학교아동의 제십삼회학예회를 휴관원에잇는 사범학교 본교대강당에서성대히 개최할터이라는데 이학교는 원체여러학교가 연합되여잇는만큼 그학예회는 해마다모든준비가완비하야학부형들은 물론이요 일반참관자에게도 걱정을만히 바뎌오는터인데 금번에는 특별히 재미잇는 "프로그람"을 만히 맨들어서 사범학교로서 평소에 남다른훈련을밧고잇는 특색을 나타내기에 고심하는중이며 또부속보통학교아동과 부속소학교아동들의 빗나는 재조를 만히 보여주도록만반의 준비가 잘되엿다한다 더구나 이십이일은 마츰일요일임으로 첫겨울의 하로를 가족이동반하야 창경원이나 광희문밧게 산책을한후 도라오는길에는 그부근인 사범학교에들러서 귀여운 미래의 천재들의재롱을보고 그날하로를 온전히 유쾌히 보낼수잇슬것이라하야 모다손꼽아기다리고잇다한다

虐待밧는少婦

십구일밤열두시경에 시내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우헤서 나이이십세밧게안되는 청초한젊은녀자한명이 강물에몸을던저죽으랴는찰라에 마츰그곳을순찰하던룡산서원이발견하고 그를어르류하야 조사한결과 다음과가튼눈물겨운사연이판명되엿다 녀자는 시내신당정(新堂町)일백사십번지 김삼룡(金三龍)의안해되는 리복녀(李福女)(二○)로서 그는 여섯살때에 아버지를여이고 편모슬하에서 자라나서 가난한중에도 겨우시내어떤보통학교를졸업하고 삼년전에 전긔남편과결혼하엿는데 부부의 의는조호나 석어머니의 눈에 맛지안허 항상 돈한푼도가지고 오지안흔가난한 며누리라고하며 구박이심하던것이 최근에는 더욱 자심하여갓스나 이미 뱃속에는새로운 생명이 들게되여 억지로참어오다가 이주일전에 옥동자를분만한후 남편에게내가죽고나거던 돈만흔안해를 어더서 잘살어가라는 애처러운 유서를써노코서 이날밤 마음전차를타고 한강으로나가서 죽으려던것이다 경찰에서는 하로밤을 보호검속하엿다가 이십일오전에 그의납

籠球리그第13日

普成·徽新 延專等各勝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主催의 第十回 全京城籠球聯盟戰 第十三日은 二十日午後六時半부터 鍾路YMCA室內코—트에서 이날의 첫게임 普成對京城工業의 對戰으로 열렷는바 다음과가튼 「스코어」로 普成軍이 京工軍을 徽新軍이 靑年軍을 이겻스며 靑年團의 延專對라이거戰은 延專軍이 勝利하야 모다 二十一日에는 各各 四戰四勝의 全勝率을 保持하고잇는 培材高普와 中東學校戰이잇서 이날의 接戰은 應當 兩校應援團을 熱狂케할것으로 豫想된다

普成34 (26 8 / 9 9) 18京工

【第一次】 普成高普對京城工業戰은 同日午後六時부터 李惠澤 申光浩兩氏審判下에 開戰된바 結局三十四對十八로 普成軍이 快勝하엿다

反	得	【普成】		【京工】	得	反
1	13	黃河雲	F	吳恒敏	5	0
0	0	金永祥	F	韓址榮	1	0
0	4	李德昌				
1	12	劉在烈	C	韓得淳	4	4
			C	白光鉉	0	0
1	7	吳台煥	G	尹貞遠	6	1
3	8	李弼行	G	鄭鎭洪	2	0
6	34				18	5

徽新32 (16 16 / 8 6) 14靑學

【第二次】 徽新對靑學戰은 同日午後七時二十二分부터 李文鎬 申光浩兩氏審判下에 開戰한바 結局三十二對十四로 徽新軍이 勝捷하엿다

反	得	【靑學】		【徽新】	得	反
0	4	金慶福	F	黃材三	2	2
1	4	姜允鎬	F	鄭東湊	14	1
2	0	金龍洙	C	秋尙燁	7	0
0	0	金壽昌				
1	5	李應斌	G	金寬植	2	3
0	0	康仁錫	G	梁在喜	7	3
1	1	金俊泰				
5	14				32	9

延專58 (21 37 / 16 13) 29라俱

【第三次】 延專對라이거籠球團戰은 同日午後八時十八分부터 李惠澤 崔海龍兩氏審判下에 열린바 結局五十八對二十九로 延專軍이 快勝하엿다

反	得	【延專】		【라俱】	得	反
1	14	金應鎬	F	金胤鎬	4	1
3	11	李容馥	F	閔宅基	1	0
0	2	洪文吉				
1	13	廉殷鉉	C	陳永得	9	1
0	2	張利鎭	G	李勳默	2	2
0	2	方元淳	G	金鶴權	13	4
1	12	金[illegible]信				
6	58				29	8

第13日 現在

【中學團一部】

順位	校	試	勝	敗	率
1	培材	4	4	0	1.000
1	中東	4	4	0	1.000
2	徽文	4	3	1	0.800
3	養正	3	2	1	0.666
4	靑學	4	2	2	0.500
4	徽新	6	3	3	0.500
5	道商	3	0	3	0.000
5	一高	7	0	7	0.000

【中學團二部】

順位	校	試	勝	敗	率
1	協實	4	4	0	1.000
2	中央	4	3	1	0.750
3	普成	3	2	1	0.666
4	二高	7	4	3	0.571
5	善隣	4	2	2	0.500
6	京工	5	2	3	0.400
7	公民	5	1	4	0.200
8	漢商	4	0	4	0.000

【靑年團】

順位	校	試	勝	敗	率
1	延專	4	4	0	1.000
1	普專	3	3	0	1.000
2	스俱	5	4	1	0.800
3	靑學	3	2	1	0.666
4	라俱	4	1	3	0.250
5	[illegible]	3	0	3	0.000
5	南[illegible]	4	0	4	0.000

알구진世上에이것은또

一躍成功의快報

算盤一個가唯一의武器

암만읽고쓰는것이 훌륭하여도 算을못하면 곳치여읽고쓰는것도 허되여 他人의 압헤서 뜻아니못그럼을밧는일이만타 珠算을잘하므로 [illegible] 一躍[illegible]한地位로[illegible]한例는[illegible] 會社、商店其他如何한職業이라도 珠算에能하면 남에게[illegible] 만큼立身出世가빨른 大阪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表한新式速成珠算獨習の秘訣을 보면어떤사람이나 一週間쯤의 練習으로漸漸益熟할수잇게苦心硏究한結果獨特한考案으로加算、併算、副算、暗算法、未還加乘法、開平法、開立法、步合算其他珠算全般에 거처 一一히 圖를너허가려운곳에손이가는것과가티 詳述하야잇다 同書는四六判和綴美本定價一圓五十錢의것을 大特價一圓 送料十五錢으로 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에게頒布함으로 希望者는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着拂로稱送 送料共一圓三十[illegible]錢으로 送本한다

右「珠算獨習의秘訣」注文者에 限하야 [illegible] 付하고 [illegible] 景品을 [illegible] 無代로 同封[illegible]

便紙를잘쓰면 立身出世가빠르다

植原文學士發表

交際나、取引에 잇서 便紙를잘쓰면남에게敬意를밧고어떤일이나 훌륭히處理할수잇스나 反對로便紙가서투르면 벙어리와가티充分히發表할수업고乃終에는 義理를일코相對에 感情을 주어서 뜻아닌失禮를하는일이만타、文學士植原[illegible]郞氏의「實用新案手紙大辭典」은 交際文、商用文、暑中寒中等 四季候의慰問、病者慰問、祝賀、謝禮文照會催促、注文吊文을 비롯하야 其他모든書翰文의 書法이나 便紙에關한 一切常識[illegible]

훌륭한! 內職副業이 發見되엿다

受苦하지안코多大한利益을어드려하는것은 危險性이만흐며조금受苦하면 一日四五十錢이라도조흔 確實한收入잇는 內職副業이잇스면一家의增收를어더生活安定과幸福한生活을營爲할수잇다。今回大阪市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表한『內職副業總案內』는 理想的인蓄金書로서 無資本同樣또는 極小資本으로 男女老幼누구나할수잇고 그리고本業副業으로서 確實有利한事業을 調査發表하고內職副業의일을내는 商店原料의仕入製品의販路까지도 記載하얏다 더욱小資本으로할수잇는 小賣店의開業法及婦人就職案內도 調査發表하얏다 同書는 四六判約三百頁로特價九十六錢으로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希望者에게頒布함으로 直接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 着拂送金卄錢增으로 送本한다

나오라 雄辯家

發見된 雄辯의秘訣

『演說은立身成功의基礎』라고한다 現代는 事實上言論時代이다 自己의意志를充分히 發表치못하며하고십흔 式辭、人事의말도 順히못하는사람이잇다 이러한 사람은 現代의 社會에서는 賤人同樣이다 그러므로어떠케 雄辯家가되는가? 今回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 發賣한『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는 麻生先生이 苦心한編纂으로서 누구나이冊으로서 達한雄辯家가될수잇는 實로理想的快書이다 特히本書에는知名人士의式辭、演說、人事等의草稿를 無數히充載하엿스므로 辯論、演說、講演、式辭、人事等何時如何한場所에서든지서슴지안코 意味明瞭、論理整然、威風堂堂하게 大氣焰을 吐하야 滿堂의聽衆을 陶醉케或은感惑케하야拍手喝采를밧는일은 다시업슬것이다

그럼으로 同書는 最新版四百餘頁クロース金文字箱入美本定價一圓四十錢을 千部限하야 破格의一圓으로 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에게 頒布하는中이니 希望者는 葉書로申込하면 着本拂로 送本함, 送料共一圓卅二錢으로

돈!돈!돈! 돈모기는?

아모리 하여도 時勢이다 그러나 그만큼危險이잇스나 이危險을 突破하면 時勢만큼滋味잇는것이업다 百萬圓、千萬圓을貯蓄하엿서도 누구나 苦惱를맛볼者업는 天下泰平의大賭博이다 今般大阪市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株式期米相場必勝術』이라한 時勢道의 極意書로 누구나 試驗하여보아도決코 損을안보는 大理法을 公開한것으로 이理法을 活用하면一攫千金을 어들수잇는 大至寶典이다 一般으로누구나 不論하고 一秒라도 速히 御讀해야할것이다 그래서 同書는定價二圓을 先着五百名限으로 特價一圓五十錢으로 前記現代出版社에서 希望者에게 頒布하는中이다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 着本拂로送本함

人相과姓名의吉凶

人相과 姓名의善惡으로 壽夭窮死또는榮枯盛衰等에 不可思議한關係가잇다.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家相寶典と名前の付け方』([illegible])은 [illegible] 凶相이變하야 吉相이될수잇다는것으로 [illegible] 家庭 商業이繁昌치안는者 立身榮達[illegible]者는 반다시人相과姓名에基因함으로 注意할바이다 希望者는前記 現代出版社로 葉書로申込하면 代金着本拂送料共一圓卄五錢에 送本함

五十錢銀이 八十圓에팔린다

거짓말과가튼事實 여러분이日常使用하시는貨幣中에大端히高價한物品이잇서 數百圓이되는貴重品도잇고 一錢銅貨로 八十圓以上에팔수잇는것도 잇다 大阪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發行한 『金銀銅貨寶典』에依하야 [illegible] 現代出版社에서 買入하는故로 [illegible] 送本함

百貨店舞臺로 소매치기少年

사흘동안에 번번한 백화점(百貨店)을 무대로 소매치기한 대담한소년이 본정서원의 손에 걸리엇다 시내 아현정(阿峴町) [illegible]번지 배[illegible](裵[illegible])([illegible])이란소년은 지난 일개 [illegible]소(開[illegible]所)를 나온뒤에 시내삼월(三越) 삼중정(三中井) 정자옥(丁子屋)등 백화점에서 혼잡을 이용하야 수십건의 소매치기를 감행하야 그액이 근 천원에 달한다하며 십구일에도 삼월에서 그 [illegible]회를 엿보고잇다가 순시하든 형사에게 발각케 된것이다

賣買猶豫期延長과 月賦販賣制陳情

靈泉土地會社住民代表가 六個要求條項列擧

부내현저정(峴底町) 행촌정(杏村町) 평동정(平洞町)일대에 련하여잇는 령천토지경영회사 소유 주택지에 사는 약사천여호주민은 지난구월에 회사측에서 차지인측에게 보낸통첩측 [illegible]회사의 지정가격대로 금년말까지 사되 만약에 사지안하면 제삼자에게 팔어도 말하지말것을 [illegible]공명[illegible]부터 차지료를 [illegible] 일마씩 올리겟다는 통첩을 밧고 회사측의 태도에 분개하야 주민대회를 열고 대표를 회사측과 절충중이라함은 이미 본보에 [illegible]보도한바어니와 주민측 서는 그회사사장 화원진길(花園眞吉)씨를 만나 그들의 사정을 말하고도 회사측의 양보를 구하려 노력하엿스나 회사측에서는 만나주지도 안하고 또조금도 양보할기색을 보이지 안함으로 주민측에서는 서세충(徐世忠) 명주성(明柱成) 유원섭(尹元燮)씨를 대표로 선정하야 이십일 소관서대 문경찰서와 및관계당국에 다음 여섯가지 조건을들어 적당히 조정하여주기를 진정하엿다한다

一、지가는 지주가 지난 시일 팔일에 최후로 통첩한 지가로부터 석축(石築) 하수구등 공사비로 평에 십원식 제할일

一、토지대도 유예기간을 소화십삼년 십이월 말일 까지로 할일

一、차지인이 일시금으로 사지못하는 때에는 팔개년식 월부로 선정하야 이십일 소관서에 [illegible]

一、지주가 제삼자에게 팔때에는 판계차지인과 협의한후에 팔일

一、지주는 자동차길 확장 수도전증설、하수구덥게를 하여줄일

각한사실을비롯하야 그후그는 십칠일새벽부터시정에 다시전과의가 든수단으로 돈석에전 토성공원보 동하여다 사양하는도야지한마리를훔쳐 몰어다가 부내에와서 도교시장(都橋市場)에서 수육상[illegible]

京城府防火데ー

各樣各種의行事로積極宣傳

十二月一日에擧行

회재철을 당하야 경긔도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오는 십이월일일에 경성부내에서 다음과가튼 순서로 『방화(防火)데이』를 실시할터이라한다

이날 오전아홉시반에 경긔도청아페서 령지봉독식(令旨奉讀式)을 거행하고 오전십일시에는 경성부의 주최로 경성신사(京城神社)에서 방화기원제(防火祈願祭)를 집행하고 소방수(消防手)와 소방원 각한면식을 한패로하야 굴뚝과 아궁을 조사하고 불끄는 긔구와 『비상구』(非常口)등의 일제검사를하고 각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방화강화(防火講話)를 하기로 되엿다

그러고 각학교와 부내자위소방단체(自衛消防團體)에 대하야 일제히 피란연습(演習)을 시키며 경성부청압 광장에서는 소방서원의 피란구호연습을 할터이다

이밧게 오는이십구일부터 사흘동안 삼월(三越)백화점 진렬장에 방화참고품의 진렬을하고 어리간중에 경성부청과 부내각간판에『방화데이』의『삐라』와『포스터』와 방화선전서낭을 거리흑백화점에『넌』등광고를하며 이그은 각활동사진관에서는 오는 이십구일부터 사흘동안 『스라이드』의 영사를하고 소방대자동차로서도 선전하기로되엿다

元町强盜犯

滑日에一回公判

지난사월십칠일 오전한시쯤 부내원정(元町)이정목 담배가게(煙)조동요의집에 들어가서 금융가지고위협하야 돈오십원을강탈하고 또지난사월 오전두시쯤 내 원정삼정목우편소원원수(遠[illegible]

寫眞說明

今日登場할各校代表들上으로부터咸興永生女高普、開城好壽敦女高普、培花女高普、元山樓氏女高普、梨花女高普

梨泰院大量掘塚

每日七百餘基式發掘

◇標木의紛失로喜悲劇續出

【京畿】 대경성[illegible]이십여년 동안 매입팔구삼분지 늘어가오 만여분묘를이룬 리태원공동묘지도 묘지로서는벌서 세월이이미 지나가 발굴하기를 시작한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지난사월부터유주(有主)분묘는발굴하기시작하야 날마다수십개의 해골을퍼낸것이 이만수천개이고 남어지묘주(墓主)가차지안은무주(無主)분묘이만여기는 경성부에서 시일 [illegible]

심사일부터 매일백여명에 틈써서 하루에칠백여개에 응발굴하야 동대문밧 망우리공동묘지에합장하는중인데 그간지방으로부터 묘를찾자모여든 사람들로 표목(標木)을찾지못하야 방황하다가 헛되히눈물을 돌아가는이도만코 남의묘를 다하야 란투극이 이러나는일도 비일비재로 일어난다한다

京城女子高普校教諭 孫貞圭

學校와家庭 同校 校長代理 [illegible]

東小門女普校

『學校와家庭의저녁!』

來二十七日에開催

숭삼동정목 동대문녀자보통학교(東大門女子普通學校)에서는 학교와 아동들가정과의 친밀을도모하기위하야 이십칠일 저녁일곱시부터 동교뒤에잇는 동대문교회당(東大門敎會堂)에서 『학교가정의 저녁』을개최한다는데 강연은 다음과가트며 각연제사 이에는 동교아동들의 귀여운창가가잇슬터이데 학부형은 물론 일반 특히 부인들의 래청을 환영한다고한다

◇講演

婦人의德 [illegible]

乳兒營養法에對하야 府民病院小兒科長 李先根

배운재주는養豚窃盜

【開城】 부외서면개성리(府外西面開城里) 륙백이십칠번지 전경종(全景鍾)(二一)이란자는 지난칠일밤십이시경 동면룡리일백십오번지 양태운(梁泰運)(二[illegible])의집 도야지우리에서 시가이십오원가량하는 양돗한마리를 교묘한수단으로 도적해다가 이십리나되는 개성으로 몰고드러와가지고 북본정(北本町)이사사번지 장치만(張致萬)에게 십륙원을밧고 매 [illegible]등림(藤林[illegible])의집에들어가서 역시끌로위협하며 돈을내라고 강청하다가 주인과밋사무원과 격투끄테 붓잡히여 소관룡산경찰에서 취조를마추고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어오부내연리정(蓮里町) 륙십륙번지 단흥완(段興完)은그간 김(金)검사의 취조를밧고잇든바 강도밋 강도상인죄로 긔소공판에회부되야 오는삼십일경성지방법원에서 증촌(增村)재판장주심 김검사관여미테 제일회공판을 열기로되엿다

昭道會總會

소도회(昭道會)에서는 이십일일 오후세시에 시내 태평통(太平通)일정목 부민관강당(府民館講堂)에서 총회를 개최할터이라한다

仁川府의都市計畫과 沸騰하는土地熱

法外의高價를極警戒

【仁川】 인천부에대한 삼십년후의 대인천의 도시계획이 세상에 알리여지자 비등하고잇는것은 토지열이다 이리하야 부내부외의 요지는 발서수삼회의매매가 성행하야 예상이상의 고가를 보이고잇다 이는토지『뿌로커』들의 부르는 헛경기에지나지안는 현상이라한다 이에대하야 인천부당국자의 말을참작하야보면 아모리요지를 손에느엇다하드라도 선도로부설에 대한 수익세등 정리비가 적지안흔것임으로 일반은 적어도토지에 관한 현시가이외에 정리비등 한산한연후에 매매치안흐면 장래 하지안흘가하는점에 회수할길이업는 대실패를당할 가장주의할 필요가잇다한다

本報開城支局後援

申鼎言野談大會

今夜高麗靑年會館서

【開城】 고려청년회학예부(高麗靑年會學藝部) 주최와 본보개성지국 후원하에 오는이십일일저녁 칠시경에 고려청년회관내에서야 [illegible]

開城道路網明粧

滿月線新設과下水溝改築等

大工事를進捗中

【開城】 현재개성을 동서로 통(東[illegible]通)하는 [illegible]실(實)이 완전히 못하야 도로와 [illegible]서(西[illegible]線)이 매년 남북선(南北線)마저 오여지안하야 공비로 개수한다하니 십여만원 불수잇스나 하천개수와 지선도로(支線道路)의 확장등은 시가지만은 정연히 완비되리라 을요하는곳이 만흠을 이것도를 벌떼에 서대문사로써 실현을보게되바 금후개성의 도로망이면 목일신케 명장(明粧)될것으로내 역은 다음과갓다

滿月線道路新設

만월선은 대화정(大和町)도서 편안을 북긔정으로해서 상어하교 고개를 돌코 만월대로 직 통하는 신작로를 신설하는공사 인데 적이는 약일천메돌ー폭은육메돌ー공비는 일만여원이라한 다 이리되면만월대는 개성역과 거리가 퍽가까워질것으로 일반 [illegible]

[illegible]산의 방화를 도을것이 [illegible]이곳으로 다행세상하는 [illegible] 금수송의 하월도반도 구허 단 [illegible]수될것이바 전천세월을 그리는 부민은 잣고만이곳으로 문화주교선(新[illegible]) 도로공사가 진

南本町下水溝改修

남본정(南本町) 지궁(池[illegible]) 수구(排水溝)는 현재석축이 헐어 장마때만되면 시가지로 범람하는 홍수는 근처에 출비한가우 을 전부 침수케하고 인마통행 까지 두절시켜 남본주민에게 적 성이 자지안흔바 부청당국은작 년에 응치예수 가우이결충의제 원자 공사를 미친후 금년에 예 수공사를 완전히 실현하고잇는 바 총공비는 한이원이라한다

九校學生總動員

豪華한軍事演習

第五回專門學校聯合演習

제오회개성학생련합연습은 경성 제대를 비롯하야 아홉학교에약 이천명을 동원하야 이십일오전 아홉시부터 부영(富永)화교국장 을 총감으로 추비하고 룡보정 성불렵리[illegible]일대의 삭아에서 설대 히 거행되엿는데 작전계획에잇 서서는 최고권위라는 남총독(南 總督)도 이연습에 참가하야 충 을 겨누고잇는 학생들에게 일 일이친절한 저도가잇서서보는사 람으로하야금 놀래게하엿다한다 그런데 이날연습에 잇서서북 군(北軍)과 남군(南軍)으로 난 호아 북군에는 대학예과 고등 공업 고등상업 사범학교가 참 가혓고 남군에는 의학전문 약학 전문 척과의전 수원고농 법학 전문이 참가하야 호화스럽은전 전을 연출하엿다

牛市場에소도적

【開城】 본적을 파주군(坡州郡) 에두고 일정한 주소가업시 [illegible] 도혜간으로 떠도라다니는 리춘 경(李春卿)(三[illegible])이란자는 지난십 팔일 오전칠시경 부내 태평통 (太平通) 여무네다리(於川橋)우 시장(牛市場)에 시가이백원가량 되여보히는 황소한마리를 끌고 와서 이곳 소장사에게 엄매사 십오원에 헐가매매중 마츰 그 곁을 순행하든 경관이 그자의 행색이 수상하므로 신원을 엄중 히 조사한바 『소도적』의 정체 가 탈로되엿는데 이자는 지난 십륙일 기품일 경기도 [illegible] 창리(金化郡西面[illegible])로부터칠 원군 갈말면 토성리(土城里)를 향하는 [illegible] 末[illegible]土城里)를 향하는 중간에 에 치엽해서 황소한마리를 도 적해내다가 그날밤 청원과 련 천을 무사히 지내 개성우시까 지 끌고와 팔려든것이라한다

阿片密賣者 開城署에또被逮

【開城】 부내남본정(南本町)일백 사십사번지 박근하(朴根夏)(三[illegible]) 마서정(萬月町)공삼의번지 백상 규(白相圭)(二[illegible])양인은 세아편을 호한제 조하야 밀매하는혐의로 괴롭는부욕한 사실이 오지옹 개 성서에 탐지되여 즉시체포 아 편일포를 압수하는동시 계속취 명도 방을 취조중에잇다한다

달려오가 개최되는바 연자는 리아다시개에 명성이높은 신채연 (申采蓮)씨로 벌서 반도의 인 긔는 절정에잇다하며 연제는 다음과 가다한다

(一) 케이진 팔종사관

(二) 元孫皇의 入學

覇權은어느校旗에!

今日女子籠球戰

第一回戰에好壽敦과培花對陣

午後一時、梨專體育館에서

여자롱구의 화려진(華麗陣)! 리화여자전문학교주최(梨花女子專門學校主催)와 본사후원의제삼회 전조선 여자중등학교롱구대회(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는 마침내 금이십일일 오후한시부터리 전체육관에서 열리게되엿다 모교의 명예를 질머진 여용사들은 조마조마한 가슴을부등켜안고 이마당에등장 터인데 일진일퇴하는 적과(敵軍)의 변환을 따라 각교응원단은 히비(喜悲)의 교향악을 떠번이나 울릴것인가 만도의이끼는 이에쏠리고잇다 이날제일회전에는 작년의우승교호수돈(好壽敦)과 중앙의강진배화(培花)가대전케되엿고 제이회전에는 원래의한흥영생(咸興永生)과 원산루씨(元山樓氏)와 대전케되엿다 이리하야 제일회 전의 승자와 리화녀고(梨花)가 대전하야 결승전에 림할터이데 결승의필승은 자못백중하야 승패의귀추를 예상키어렵다 대회 의 푸로그람은 다음과갓다

◇大會順序

一、開會 午後一時

一、選手入場 一同

一、開會辭 會長(이화전문학교장)

一、優勝旗返還 優勝校(好壽敦)

一、選手代表

一、宣誓

一、競技

一、閉會 會長

新高奮戰도水泡

培材快勝

廿二日京師와決戰

全日本中等學校籠球大會鮮鮮地方豫選決勝…培材高普對新義州高普戰은 二十日午後三時五十二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本田(主)、東、木村(線)三氏審判아래 新高의킥으로 開戰되엿는데 兩軍자못 緊張한 가운데 猛烈한攻防戰을 演하든 니 開戰十六分에 培材TB李三永君의 드리블로 一擧五點을 너아 入點零으로 培材ー드한채 前半을마치다

後半에드러가 七分에 培材『스크럼』드라이브로 三點을加하야 十一對零으로 培材依然優勢하든니 十四分에 培材飛燕男君매달리 하 追撃하야 [illegible]을 올리자이에 新高 …廿五分에 培材TB姜大萬君의右側드라이브로 또得點하야 入對零으로 … 듬하드니 十四分에 新高 …九分에 新高 金明秀君의 『패날티킥』으로 三點을 挽回하야 十 十對零으로 … 培材 22 (14 8 : 3 0) 3 新高

[培材高普]

FW	牧鎭鎬 李[illegible] 金[illegible] 在仁 [illegible]
HB	[illegible]
TB	[illegible]
FB	[illegible]

[新義州高普]

[illegible]

全滿氷上聯盟의 朝滿對抗戰

一月卅一日擧行

『원러ー스포츠의 계절!』『스케팅시ー즌』을 마지한 全滿洲氷上競技聯盟에서는 昭和十二年度冬期의 大陸『스포ー츠』界의 最大行事인朝滿對抗競技大會는 一月三十一日에 例年과가티鴨綠江鐵橋에서盛大히 擧行하기로 決定하엿스며 其外에도 同聯盟獨自의 『플란』으로서 滿洲創業三十周年記念에는 歐洲로부터 世界一流選手를 招聘하야 奉天國際的『레ー스』를 行하기로된바 同聯盟에서決定된 『스케듈』은 다음과갓다

▲一月三、四日=全滿B組選手權大會(奉天)

▲一月九、十日=全滿氷上選手權大會(奉天)

▲一月十五、六、七日=早大對全滿스피ー드對抗競技(奉天)

▲早大『하키ー』團과各都市單對抗戰(各地에서行함)

▲一月三十一日=朝鮮對滿洲氷上對抗戰(安東縣)

▲二月七日=全滿스피ー드種目別選手權大會(場所未定)

▲二月十三日=第三回全滿都市對抗大會(新京)

運動界集會

▲서울스키ー俱樂部에서는 來二十四日午後七時부터 鍾路一丁目朝鮮體育會內에서 來시즌에關한 準備會를 열터인데會員은 無漏出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高麗卓球聯盟에서는 第十回在京理事會를 今二十一日午後七時부터 鍾路中央靑年會同聯盟事務所에서 열고 다음과가튼 事項을 上程할터이라고한다

一、第一回女子專門學校卓球聯盟戰經過及會計報告

二、第二回卓球聯盟戰(男子)開催準備의件

三、其他事項

今日의運動

▲籠球=梨專主催 本社後援第三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籠球大會 午後一時 大峴町梨花女專體育館(入場은 招待券持參者에 限함)◇第十回 全京城籠球聯盟戰 第十四日 招賢對中央(午後六時半)培材對中東(午後七時二十分)普成對公民(午後八時十分)高麗對普賢(午後九時)鍾路靑年會館內코ー트』

勿失好機

百補丸一箱式無料進呈期限도 滿期 迫到 不遠 締切되오니 機會를일치말고 一日速히注文하시오

藥價 一劑 特價 拾圓・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箱以上共同注文하시는분에게는 一人一箱式無料進呈

男女老少

一、老年이쓰면 更少年 이되고

二、壯年이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쓰면 煖宮 胞胎하고

四、靑少年이쓰면 精神이 聰明한 秀才가 됩니다

●補藥은 洋藥보다 漢藥이 第一! 漢藥中에는 百補丸이 斷然 第一 그럼으로 百補丸은 各界 貴族、兩班、朝野名士諸氏의 賞讚 推獎 愛用을 밧는바입니다

이런분은쓰시요

▲氣血이供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蒼白한사람
▲性慾이줄고 活氣가업고 手足과 下체가 恒常冷한사람
▲腦가不足하고 허리가알코고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 衰弱한데 特效잇슴
▲消化不良、체증、속병가트것은 어느때 업서지는지알지도 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眼精力이됩니다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暈、性、神經衰弱人은 더욱必要합니다
▲눈이밝어지고 皮膚가 조와지고 血色이조와집니다
▲全身 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 完全한 藥이라는것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입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한效驗잇습니다
▲男女老少 다 조흡니다

世界第一記念

▲先着一萬人限無料進呈

躍進日本쓰포ー쓰는世界第一

今回獨逸伯林에서 開催된 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 藥光의 一等! 政府는 國民保健을爲하야 保健衛生을 奬勵하는中 健康問題로 天地가振動하는이때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健康을爲하야 또는 世界的쓰포ー쓰를 紀念祝賀하기爲하야 損益不拘하고 大大奉仕的으로 先着一萬人限하야 百補丸十圓分一劑 사시는분께 百補丸(十圓分一劑)一箱式을 無料進呈하기로하엿사오니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中止합니다 ▲注文하시요 早速히 注文하시되 一日速히 注文하시요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 六三二番・振替京城五番

産業

朝鮮內肥料供給 朝窒獨占主張
肥料統制令의實施를압두고 朝窒會社自案明示

朝鮮의 肥料統制令은 目下總督府의 손을떠나 法制局에 原案이 廻付되어 農林省法制局과의 間에 그實施運用等에對하야 協議中이다 그런데 右統制法은大體 日本內地法에 準據한것인바 그內容中 販賣價格의 統制는問題가아니라하고 配給統制乃至販賣統制를 如何히 할가하는것이 가장 注目되고잇다 即 日本內地에서는 製造業組合을 結成식히고 이에 自治的으로 統制식히기로 되어잇스나 朝鮮에 잇서서는 製造業者는 朝鮮窒素一社만으로 相當히 事情이다른바 그朝鮮窒素에서는 大體 來年度의 販賣方針을 左와如히 決定하얏다

一、來年의 供給量을 四十萬屯으로하고 그中 三十五萬屯을 朝鮮內供給에 充當하고 나머지 五萬屯을 日本內地或은 外國에 輸移出함

二、右想定下에 朝鮮의 肥料統制에對하야서는 朝鮮의 供給權을 모다 朝窒에 一任하고 朝窒은 責任을 지고 全朝鮮의 供給을 保證하고 또不足의 境遇는 朝窒의 손으로 移入항을希望함

右와如한 方法에依하야 朝鮮의 肥料統制는 完全히할수잇다고 朝窒側에서는 보고잇스나總督府가 右朝窒의希望을 드를가는 자못 疑問으로 總督府의이에對한 裁定은자못 注目된다

主要大都市에 朝鮮館設置
物産宣傳에進出計畫

總督府殖産局에서는 外事課와 連絡하야 對滿貿易振興의 劃期的方策을 實行에 옴기기로 되엿는데 다시 對日本內地貿易에 大大的 拍車를 加하려고 先般의 産業經濟調査會의 要望에基하야 諸般重要對策을 樹立하고 目下渡東中인 穗積殖産局長이關係要路에 向하야 여러가지 具體的折衝을 行하고잇는데 同局長의 歸任을 기다려 如左한施設을 行하기로되엿다

即 明年度에 東京 大阪 名古屋 橫濱 神戶 仙臺 門司 福岡 廣島 新潟等의 樞要都市十數個所에 亘하야 商工奬勵館分館으로 朝鮮館이라고 命名하고 朝鮮産品의 紹介宣傳機關을 新設하야 物産의紹介宣傳 市場의商况調査 商取引의 斡旋指導를 行하기로 決定하엿다 또 販賣의 合理化를 圖하기爲하야 出荷組合을 設置하야秩序잇는 出荷를 시키기로 되엿는데 該計劃의 成果는 벌서부터 多大한 期待를 가지게되엿다

優良種普及으로 長湍畜産業好績

長湍郡農會에서는 農村更生의 農家의有利한 副業으로 畜産優良種普及 奬勵에잇다하고 土野産業技手着任以來 이에 拍車를 加한結果 良好한成績을擧揚하고 잇는터인데 畜牛는 農家一戶標準으로 金融組合과 相互連絡하야 購入等에 便宜를 圖謀하고 養豚에 對하야도 조흔 品種을 斡旋하야 飼養케하바 年年히滿洲移出이 多數에至하며 或은京城方面으로 肉豚販賣頭數가 顯著히 增加하는 同時에 價格도 高價를 呈하야 農家經濟가 顯著히 好轉하고잇스며 또한 郡內養鷄家는 六千戶以上으로서 在來種이 五千首에 改良種이 三萬首以上으로서 改良種普及數가 八割六分나되는터인바 멀지아니하야 全部改良種을 飼養케할方針이라하며 이에 鷄卵生産額도年二萬餘圓에 達하는터로 各市場에 共同販賣斡旋을하야 今年四月부터 九月까지 六個月間鷄卵出荷는 一千四百餘貫에 達하는데 昨年中 九百五十二貫에比하면 格別한增加를 보이리이다

漁業의王座 鰮漁業趨勢 (三)

製造加工品生産高

鰮은生魚대로 食料品으로 消費되는 量은 極히 僅少하고大部分은 製造加工品으로 消費된다 그리고 그製造加工品은 鰮油鰮搾粕及로마토、서ー진等으로 한다。鰮油는 最初搾粕製造의際의副産物에 不過하얏스나 近時硬化油原料로되고 또輸出品으로되게되어 價格도 騰貴를보게되어今日에는 鰮油와 鰮搾粕이 어느것이 主體이지 判明되지안는形便이다。此兩者의 製造法은通하면 過程은서로並行하는것으로生鰮을 煮熟하야 이를汁과共히壓搾하야 油를 搾出하고 殘餘의 粕을 乾燥하야 搾粕을製造하는것인데 生鰮을 釜로 煮하고 乾燥는 天日로하는 原始的製法 뿐이러니 [illegible] 蒸汽를 내어 煮沸하야 드라이야ー로搾粕의 乾燥를行하는 新式의 方法等 자못 雜多하다 다음 토마 [illegible]

▲鰮油生産高道別年次統計表(昭和六年乃至昭和十年)

道別 / 年別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昭和九年度	昭和十年度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單位罐 一罐=二七斤半

▲鰮搾粕生産高道別年次統計表(昭和六年乃至昭和十年)

道別 / 年度	昭和六年度	昭和七年度	昭和八年度	昭和九年度	昭和十年度
咸鏡北道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單位俵、一俵一六〇斤

내어 煮沸하야 드라이야ー로搾粕의 乾燥를行하는 新式의 方法等 자못 雜多하다

로서ー진이라함은 로마토鰮詰로서 昭和六年頃부터 製造하게된 鰮加工製品이다

이제 各製品生産額을보면 左表와如한데 鰮搾粕의 比例를 重量에잇서서 二〇%로보고 鰮搾粕統計로 그要한原料生魚의 數量을 推算하면 左表와如하야 이에依하야보면 鰮의 거의大部分이 搾粕及 油의原料로 使用됨을알수잇다

▲로마토서ー진生産高數量道別年次統計表(昭和六年乃至昭和十年)

道別 / 年別	昭和六年	昭和七年	昭和八年	昭和九年	昭和十年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	—	—	—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單位函(一函入)

▲鰮搾粕原料生魚槪數調査

年別	搾粕生産高(單位貫)	原料生魚數量(單位貫)
昭和六年	一八、二二七、六五〇	九一、一三八、二五〇
昭和七年	一三、六七〇、二五〇	六八、三五一、二五〇
昭和八年	一七、六八四、七五〇	八八、四二三、七五〇
昭和九年	二七、九〇七、五五〇	一三九、五三七、七五〇
昭和十年	四三、七六二、五〇〇	二一八、八一二、五〇〇

▲備考=本表搾粕生産高는 一俵一五貫으로算出

漁業統制機關과金融

漁撈의 統制를主로하야 鰮油肥製造의 合理化를 圖하는 機關으로서 咸北의 咸鏡北道機船巾着網漁業水産組合、咸南、江原、慶尙南北四道에 亘한 朝鮮東海鰮巾着網漁業水産組合이다。

咸北機船巾着網漁業水産組合은 昭和五年鰮及 靑魚의 漁撈를 目的하는 機船巾着網漁業의 改良發達을 圖하야 營業上 弊害를 矯正할 目的으로 咸北地區內의 巾着網漁業者를 組合員으로하야 設立되엇것으로 本組合의 施設로서는 組合規程에 依하야 다음의八項目을 들수잇다。

1、機船巾着網漁業의 漁船漁具及 漁法의 改善에 關한 施設
2、漁場의 調査
3、組合員의 營業上의 紛議調停
4、漁夫의 雇傭에 關한 協定
5、組合員의 救濟에 關한 施設
6、組合員의 漁獲物의 共同販賣
7、組合員及 其從業者의 表彰
8、其他 必要한施設

本組合施設中 特히 注目되는 事項은 淸津漁港附屬官有地에 漁獲物의 共同處理場을 設하야 이에依하야 이때까지의 荷揚場의 狹隘、工場의不備、工場所在地가 漁港으로부터 먼데잇는 不便等을 一掃한 事業이다 以下 本施設의 槪要를 말하면

組合은 前記淸津漁港附屬地一五、〇〇〇坪의 貸下를바더서 鰮油肥製造工場七棟을 建設하고 各棟을 三分하야 一區劃一六〇坪의工場一六과 汽罐室及 附屬室을 設하야 各工場에 蒸熱供給의 設備를 施하야 機械로부터 工場、工場으로부터 乾燥場에 이르는사히는 或은 軌條를 敷設하며 或은 運搬車를 運轉하는 等 機械力을 利用하야 生鰮으로부터 油肥製造까지의 行程의 合理化를 圖한다 이 施設使用法은 一六區의 工場을 一組合員一個所를 標準하야 貸與하고 一、六〇〇圓 乃至 一、〇〇〇圓의 定額使用料를 納付케하는 外에 工場內에서 處理하는 生鰮의 搾數에 應하야 歸數比例使用料를 徵收한다 그리고 本共同施設建設에 際하야는 設備資金으로서 朝鮮殖産銀行으로부터 二〇萬圓의 融資를 受하고잇는데 이金融의길이 열린것이나 大規模의 設備의有利한 建設利用이 다組合統制의힘이라하다

本設備利用에 依한 組合員受益의 槪算은 다음과가티다

區分	生鰮陸揚賃	工場까지運搬賃	乾燥場까지運搬賃	燃料費	人夫賃	製品搾粕運搬賃	借地料修理費	工場使用料	合計
從來의設備에依한經費	九錢	一〇錢	六錢	一〇錢	一八錢	二錢五厘	四錢	—	五九錢五厘
共同設備에依한經費	四錢	二錢	三錢	三錢	一五錢	二錢五厘	—	一五錢	四四錢五厘

本組合經營漁業 操業漁船數及 漁獲高의 增加를 附記하면 如左하다

年度	昭和七年	昭和八年	昭和九年	昭和十年
操業船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漁獲高 數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漁獲高 價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產品展示會 優良品出陳慫慂

朝滿貿易躍進具體化의 第一步로 過般 來京한 宇佐美奉天、佐藤哈爾濱兩總領事와 總督府外事商工兩課間에 意見一致된 哈爾濱의 朝鮮産品展示會는 旣報와가티 十一月三日부터 五日까지 三日間 哈爾濱丸商百貨店에서 開催되므로 商工課에서는朝鮮內業者에게 優秀製品出品을慫慂하기로되엇는데 新商圈擴大의 一手할 計劃이라고한다

第一回의 試驗으로 그成績은注目되고잇다

慶北 茸增產計畫

慶北山林課에서는 今般 英陽郡日月山의 國有林野를 中心으로 天然椎茸와 木耳의 增産을 圖하야 山村의 副業으로하고저 研究中인데 明春부터 實施에着手할 計劃이라고한다

在滿洲通商機關 擴充策講究實現計畫
朝鮮의施設은實로微微한現狀

朝鮮對外貿易의 大部를 占한 對滿貿易은 今後 益益 그新販路를 開拓할 餘地를示하야 外事課에서는 駐滿各機關을 通하야 그積極的斡旋에 進出하기로 되엿는데 于先奉天에 專任派遣員을 明年度부터 設置하려고 計畫하야目下渡東中의 相川外事課長이 그說明에 當하고잇는데 外事課調査에依하면 奉天一個所만으로도 日本內地各府縣은 各히專任派遣員을 設置하고 地元物産의 滿洲販路開拓에努力하고잇서

(府賣文辦)東京、大阪、靜岡岐阜、石川、福井、和歌山、岡山廣島、福岡
(市賣文辦)名古屋、神戶
(그他團體文辦)神奈川、新潟 熊本、富山、石川、鳥取、島根 山口、德島、佐賀

의 二十二府縣에 達하고 그他 全滿에 設置된 日本內地府縣의 開拓機關은 相當히 多數에 達하는데 朝鮮은 僅僅 貿易協會로하야금 微微한 機關을 設置하고 잇슴뿐임에 鑑하야 外事課에서는 殖産局과 協力하야此際 在滿通商機關의 擴充을爲하야 具體策을 講究하야그實現에 邁進하기로되엇다

革命期滿洲農業 新興作物은무엇

이글은 東大農學部敎授佐佐木喬氏의 滿洲國農業視察談으로 從來의滿洲國의農作物中에如何한것이 새로加入되엿는가 一種의革命期에잇는滿洲國農業의縮圖로서 興味가잇는것으로 이에紹介하기로한다。

말할것도업시 滿洲國에는日滿國係以前부터 重要한 農業이잇섯슴으로 그것이 日滿國係以後 滿洲國에 棉花를 新作식히려는 要求가 日本에서 이러나 昭和八年以後 滿洲國의 農業에 綿이라는것이 새로加入되엿다 新興作物은 이綿뿐이아니나 이綿이라는것은 새로 原野를 開拓하고 거기에 新作하는것이 아니고 滿洲國의 農家가 어떠한것을 新作하고잇든 田地에 割入하야 栽培케하는것임으로 여긔에 新舊作物의 빨란스의 問題가이러나다 綿이라하야도 一時에 만코棉花을 新作식히면 滿洲國의 農業에는 큰影響이이러난다。在來의 栽培組織에 大打擊을興하는 結果로되기때문이다。

滿洲國의 農業은、只今까지 어떠케되어잇섯는가하면 一定한 田地를 三等分하야 高粱、粟、大豆의 三種作物를 新作하야 오래동안 從事하야오고 이作法에依하야 빨란스를 엇고 잇슨것이다 高粱은 日本의主用食인 米에 相當하고 그粘은 補助食糧이고 그殼은 肥料로되며 大豆는 따라서 換金되는것으로 南滿洲鐵道會社는 大豆의運賃으로사라나간다한다 大體 이三種穀를 新作하는 農業이잇는 滿洲國의 農業에 새로 綿作을 割入식히게되엇는데 왜 綿을 滿洲에 新作식힐 要求가 이러낫는가하면 日本은 年年 十數億斤의 綿을 輸入하야 紡績事業을 經營하고잇는데 萬若 經濟封鎖等을 當하면 이原料의 輸入이 杜絶됨으로 어떠케하여서나 綿을 日本이 滿洲에서엇도록하야두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런데 日本內地는 棉花栽培에는 絶對禁物인 暴風雨가 흔히잇슴으로 綿作은 絶望이다 滿洲에는 暴風雨가 거이업고 溫度도 適當함으로 昭和八年에 滿洲綿作二十年計畫이라는것이되어 三十萬町步의 綿作地에서 年一億五千萬斤의 綿을 産出시킬 目的을 二十年間에 完成시키로 되엇다 現在는 棉花와 種子가 적음으로 그種子를增殖함이 여러가지로 考究되고잇다 그一方法으로 棉花의 種子만으로 收穫하기爲한 田도 考慮되고잇다。二十年後에는 적어도年一億數千萬斤의 綿이되도록 獎勵될것이라한다

「케나프」는 麻類로 日本의 藁에 相當하다。日本의 農家에서 藁가 如何히 重要視되고잇는가는 말할것도 업거니와 滿洲에서도 農家만아니라 各方面에 使用되고잇다。藁가업는 滿洲에서는 大豆를 賣出할時는 麻袋에 너흠으로 日本의 米俵에 相當하는것인데 滿洲의 農家에서는 이를「마ー다」라고 불러 重要視하고잇다 이麻袋는 印度로부터 年年多量으로 輸入하고잇다 그를어떠케하여서나 滿洲國內에서 新作할것이라하야 研究된結果 蘇聯人이 西伯利亞方面에서짓고잇는「케나프」로만들 希望이잇다 印度에서되는麻袋의 麻는 黃麻라하야 그는熱帶地方이 아니면 되지안는다그러나 치운西伯利亞에서는「케나프」도 一種의 麻로서 麻袋를 만들수잇스므로 아직綿作처럼 重大視되지안코그러케 大規模로 하지는안나 케나프의 栽培도 滿洲國의新興作物中에 當當히 加入되어 그成績도 良好한듯하다

此外에도 滿洲國에는 새로운 農作物이 생기고잇다 此等의것을 어떠케 只今까지의 高粱、粟、大豆를 짓든 組織中에 田地에 植栽할가 只今까지의 作物方法을 損傷치안코 새로운 作物을 加할가 이는 어려운 問題이오 그에收穫과 勞力의問題도 必然的으로 잇슴으로 一方이조흐면 他一方이 나뿌다는 明確한合理的方法은 아직 서지못하엿스나 近近은 舊作物과 新作物의 빨란스가 되는方法이發見되리라고 생각된다

京城石炭需給 今年은圓滑할듯
本格的寒波의襲來를압두고 炭價昂騰念慮解消

本格的寒波의 襲來를압두고家庭燃料는 昂騰할것이아닌가고벌서부터 念慮되어서는데 京城府內의 今冬의 石炭需給狀況은어떠한가? 總督府鑛山課에서는今年四月부터 明年三月까지 一個年間의 石炭需給狀況을 推算하엿는바 大體、特別한 事情이업는限 需給이 一致할것으로 보고잇다 다만 貨車用이 多少念慮되고잇스나 이도 鐵道局에서萬全을 期하고잇슴으로 今冬京城府內의 石炭은 不足을 招來치안흘것으로 豫想된다 府需要豫想은

一、昨年實績으로 보면 今年四月부터 明年三月까지의 京城府의 消費量은 五萬噸增二十九萬五千噸(煉炭共)이라고보인다

二、即京城府市內의 一冊當消費量은 六年二噸五分九年二噸七年二噸三分八年二噸九分이되어잇서서 十二年은 三噸一分가량이될것으로보인다

三、特히 工場은五十噸以上消費工場은 九年에는 八十工場의 一萬五千噸 十年에는 百二十一工場의 三萬八千噸 十一年에는 百五十工場가량의 五萬二萬噸으로보아 工場用은 大體 七萬噸으로 推定된다

右推定으로써하면 總消費豫想은 二十九萬五千噸으로부터 工場七萬噸 煉炭四萬噸을 控除하면 結局 十八萬五千噸의 石炭을 商人이 補給하면 그만이다 一方 供給은 今年四月부터九月까지에 이미 八萬噸을 供給하엿스며 또石炭商의 所持六萬噸을 殘餘十五萬噸의 供給을바드면 足하므로 이모양으로나가면 今冬의 石炭需給은 大體一致할것으로 보인다

南北棉業會社 棉取扱量減少

지난 여름의 天候不順으로 各種農作物의 減收는 農民을 極度의 困憊에 陷하게하엿는데 特히 總督府가 留念하야 增殖計劃을 圖하고잇는 朝鮮의 主要作物인 棉花의 減收는 놀랠만한 數字를 示하고잇다 忠南、忠北의 一圓、京畿道의 八郡을 區域으로하고잇는 三井系統의 南北棉業會社 忠北工場은 지난十五日부터 操業을 開始하엿는데 그도 昨年에 比하면 操業約一個月의 短縮으로 그原因은 勿論 減收에 依한 原料의 不足이다 그의 原料取扱高는 左表와가티 總計에잇서서 半減을 보앗는데 忠南이 減收로는 首位이오 다음 忠北、京畿等이다。今春 棉의 發芽當時는 旱魃로 追播를 行하엿스나 그後의 長雨로 發育이 不良한것이 主要한 原因인바 品質에잇서서도 滿採棉이적고、木採棉이 만흔 關係上 下級品의 續出等 二重의 減收를 보게되는 慘憺한 現狀이다 이를 昨年度의 該工場 買入額에 比較하여보면 今年度는 約三、四百萬斤의 減少로 農民의損害額이 六、七十萬圓의 巨額에 達한다

昨年度買入數量 一六〇〇萬斤
今年度買入豫想 一二〇〇

昨年과 今年과의 對比(十二月十九日現在)

區域	昨年度	今年度
忠南(大德論山 扶餘郡을 除外)	五、六六〇千斤	一、六五〇
忠北一圓	四、六〇〇	二、五〇〇
京畿(抱川、加平、高陽、富平、始興、金浦、江華、楊平의 各郡을 除外)	一、二七〇	一、〇五〇
計	一一、五三〇	五、二〇〇

漁船遭難防止 施設强化를圖謀
咸南에서勵行方策

水産王國 咸南에서는 新水産主任柳川技師의 着任과 同時에水産關係의 調査整理를 進行中인데 從來부터 强調되든 漁船遭難防止에 對하야 그施設을 擴充强化하기로되엇다

即 去夏 南朝鮮을 掩襲한 颱風水害의 慘狀에 鑑하야 이를防止하기 爲하야는

一、颱風의 襲來를 미리 速히알릴것
一、劣等船을 優良 漁船으로 改良할것
一、漁港의 完璧을期할것

以上 三條件의 兼備가 絕對로 必要하다는 前提下에 近代文化의 精粹를 應用하야 速히 또 確實하게 天候를알기爲하야는各漁組及 小型、大型의 各漁船에 라듸오를 備付하야 現在暴風警報의 不備點을 補充하는것이得策이라는 結論을어더 近近 各方面과 協議하야 爲先、各地漁組에 이를 備付식히고 順次漁船에 備付하기로되엇다한다

다음優良船의 改造에對하야는現在 南朝鮮方面은 純日本式漁船을 使用하며 西朝鮮에서도이를 使用하려고하는 狀態에잇서 이日本式漁船은 科學的으로보아 砂濱引上의 不便과 積載量의 點을 除外하면 거의 完全한것으로 本道에서는 從來施行하여오는 年次計畫에 基하야 現在三千五百隻에 達하는 朝鮮式漁船을 順次로 日本式으로 改造하며 漁港의 整理에잇서서도 從來의 方針을 踏襲하야 一層擴充强化하야 遭難率의 低下를圖하는同時에 今後海의寶庫開拓을 積極的으로 斷行할 計劃이라한다

豐基蔘開封制廢止

이번 安東稅務署豐基出張所에서는 煙草耕作會議를 開催한바 特히 이耕作會議에서는 慶北豐基産人蔘茶를 接待하야 非常히好評을어덧든 이豐基人蔘은 明治十九年에 비로소 栽培에 着手하엿는데 爾來 年年顯著한發達을보아 現在는 新作面積十五萬坪 年産額十萬圓에 達하야豐基人蔘의 名聲은 朝鮮內는 勿論 日本內地에서까지 好評을博하고잇다 當業者는 明治四十三年에 豐基蔘業組合을 設立하야今日에는 組合員이 數百名에達하는데 또同組合에서는 今年에 多額의 經費를 投하야 共同白蔘製造場을 建設하고 品質의統一과 向上을 圖하야 信用을維持코저 今年産品부터 從來 開封할수잇게만들든것을 그에 嚴格한 檢査를行하야 不開封制를斷行하엿는데 이에依하야 今後는 豐基人蔘의 聲價는 노파지리라한다

平北道內木炭

【新義州】 平北道山林課에서는去九月부터 道外移出 木炭及 道內消費木炭檢査를 實施하엿는데 十一月末까지 二個月間의 成績을보면 檢査받은總數 二十三萬五千七百八十貫에 其中不合格이 一萬二千六百貫이라는 約五分의不合格으로 最初의 檢査實施로서는 成績이 極히良好하다고한다

北朝鮮「막네」의 企業接踵
大資本進出顯著

金屬工業中에 잇서 資源的으로본 日本이世界에 對等한條件을 가질수잇는것은 朝鮮에賦存하는「막네사이트」가 잇슴에 不過하다 따라同事業에는 多大한期待를 가지고잇는바、最近日本內地方面에서 接踵하야 同事業計畫이 進行되고잇다

即 從來는 日本막네化學工業、炭酸막네、日滿막네의 三會社와 朝鮮窒素의 計畫이 잇섯슴에 不過하얏는데 最近에 이르러

一、北鮮製鐵의 막네開發
一、日本曹達傍系의新計畫
一、日電傍系의日本막네

等의 新計畫이 接續하고잇다 그런데 各社共히 豊富한 朝鮮의 鑛床에 着眼하고잇서 日電系、日本曹達系에서는 目下 技術者를 特派하야 北朝鮮을調査中이다

水害義捐金
社會事業協會收合

▲一〇〇、〇〇大阪市東區淸水町吉本興業部專屬、鶴子(大阪每日扱)▲三四八、二二大阪市大阪每日新聞社扱▲三三、九〇樺太驛大泊支廳留多加出張所職員▲三、三九六、八七朝鮮總督府遞信局職員(九月分)▲五、〇〇驅逐艦連乘組海軍一等水兵鶴龜吉義▲一七、〇〇懷德縣大泉眼居住朝鮮人農務課員一同▲二〇、〇〇東京市向島區寺島町一ノ二二七伊藤駒吉▲一、四〇三、四七北平朝鮮人會扱▲三〇〇、〇〇八幡市黑崎町末松商店▲二〇〇、〇〇八幡市黑崎町末松淸一▲二〇〇、〇〇匿名 以上(八幡市役所扱)▲五三、七〇八幡市長圖師兼私扱▲一〇四、六三岡山縣倉敷朝鮮人靑年會▲七、一六大高尋常小學校職員兒童一同▲一〇、〇〇倉敷商業學校職員生徒一同▲一〇、〇〇倉敷女學校職員生徒一同▲五、七〇倉敷高等小學校職員兒童一同 以上(倉敷市役所扱)▲二〇、〇〇東京市靑山南北六丁目靑年團▲一九、五〇愛知縣豐橋市募集▲四四二、四〇長野縣廳扱▲三四六、二四東京市芝區西久保廣町一八野依秀市▲四八、九八淸津地方法院職員▲一、〇四和歌山縣海南市黑江尋常高等小學校兒童一同▲二〇、六九同內海尋常高等小學校兒童一同▲三、〇〇同內海校職員一同▲六三、六五和歌山縣西牟婁郡江住村東海工業合資會社江住出張所從業朝鮮人會▲五、三八〇、〇〇朝鮮社會事業協會京畿道支部(扱)

日計五、五二七、三六 累計三七八、三三三、四九 十一月十三日現在

▲三五五、七三 朝鮮日報社大阪支局經由

五錢 李太先 一五錢 金英秋 張南基 申亨俊 一〇錢 朴四萬 梁鳳吉 鄭見相 金致萬 李鍾孝 黃杜式 裵炳基 愼在和 李文伊 李學生 李萬伊 文同一 金其元 愼宗文 文永佑 黃聖模 崔歸人 柳元出 朴聖九 徐俊元 朴潤守 姜成千 金永奎 李德吾 許元碩 朴判用 韓奮成

沈永根 黃守奉 金奉俊 李在守 池浩淑 尹相勛 鄭又岩 張壽勳 紿秉爽 章萬熙 李桂云 李敏三 徐吉獻 無名氏 金在龍 金相覺 裵永完 柳壽明 黃京祚 金且成 劉玉伊 姜仁玉 金文煥 鄭龍宗 尙且述 林石明 崔淇植 金尙任 金亨烈 田玄主 李祺世 徐命天 李善日 崔守龍

金錫祚 宋榮來 曹點元 崔納春 張在甲 廉道鈺 李昌九 朴東根 朴岩伊 張景三 陳國東 黃鉉式 李南瑞 金夔圭 金亨淑 徐鴻植 朴興善 朴貴麟 趙敬彬 朴玉基 朴福先 崔三玉 崔福奉 柳元述 朴點卜 金分憲 張鳳學 姜洪元 朴成彩 朴海秀 柳基澤 李又壽 崔泰鎬

小林 吳永昌 金洪新 沈化燮 李向允 李南源 張東完 金交鶴 朴東煥 吳永根 鄭熙淵 孫基鎬 李點文 金泰岩 李花景 李順世 李鍾大 李守延 金章玉 朴洪烈 梁興錫 張公亡 崔基變 姜京文 金成根 盧順元 金正興 金致云 劉京植 姜百倫 李和寶 金在石

姜元敬 一六錢 一八錢 二〇錢 韓秉洙 宋仁守 梁福萬 宋在龍 金憲元 洪敬祚 李生 朴逢春 黃炳俊 文永基 金鎬東 金龍炫 黃潤貞 金在英 金明永 李鍾甲 金姓女 朴永吉 金相允 金永圯 孫卜芝 東交甫 孟正權 金明龍 朴炳煥 崔永俊 申日得 池守永 張成必 鄭泰鉉 安水奉 崔圭龍 朴杜三 朴連淳 金鋼坤 二五錢 梁日俊 三〇錢 宋德憲 宋華鳳 尹九十 金致宅 金洪權 朴致亨 邊斗玉 李光默 崔景乃 李末尙 李承元 金光水 鄭仲煥 四〇錢 金潤勇 金性述 文奇石 文基伯 朴月城 崔龍文 李鳳宰 柳鳳學 金其成 劉貴玉 愼鍾植 宋聖祚 李元俊 鄭在浩 張承範 洪南玉 金斗金 姜洪烈 蔡東鉉 河甲順 鄭晉模 金永淑 金希煥

鄭鳳尹 朴㸂 張甲乭 金萬龍 金範文 許在守 白宗基 李武鉉 鄭虎永 李進和 姜泰俊 金貫斗 黃海仰 鄭榮潤 李鳳佑 朱三童 池奉俊 申鶴均 姜泰仁 盧士運 趙鍾道 尹文玉 李郁道 金鍾斗 李七道 朴俊龍 咸應國 曹喜東 柳達斗 金尙守 李長伯 申熙性 李希善 金快岩 尹熊伊 鄭善出 朴萬吉 李大殷 任準英 朴永祚 張周元 金相鎭 劉基豚 姜錫先 南奇述 李永培 許昌任 李德守 金東碩 金良弼 金泰增 金東守 金謙洪 金興黃 宋基華 千守命 李昌石 白岩佑 林千一 朴一華 崔吉洙 梁寬浩 裵應成 柳志蕭 朴英俊 崔劍述 李晉備 李廷玉 貞日興 崔伊變 李春生 朴漢培 鄭如天 姜洪錫 柳漢秀 尹正鉉 金在淵 金學彥 金正基

姜達根 宋秉元 金洪根 韓不順 金達錄 金三錄 權永奇 速坂 李敎青 李相九 金末述 姜義萬 申文伊 張仁錫 白斗景 姜俊京 崔煥律 朴金植 裵三龍 趙許祚 金永化 曹龍碩 金在龍 愼佑其 朴聖淳 徐翆烈 兪炳吉 金永布 金斗石 李柄道 林命九 許斗龍 安仲九 朴以玉 金且文 孫亮洙 趙三得 張富春 文在三 千潤根 許一鳳 南萬基 金龜鉉 李子生 郭鍾活 陳光寺 朴元又 金元大 朱洛鍾 金基守 林光英 五〇錢 梁敏七 朴得龍 安京憲 張一杜 金允宗 李行雨 南廷甲 柳濟錫 金甲時 安年浩 潘玄錫 蔡南龍 任壽京 金七星 李賓英 尹致弘 文錫淳 金斗範 鄭末德 金壽哲 朴萬岩 金萬基 李懋源

朱長洙 尹萬榮 金善根 李鍾駿 朴永珍 李海龍 申鉉騎 姜顯中 朴永春 鄭在鎭 李中奎 金龍劍 崔桂安 朴武三 李成七 玄二連 孫今祚 安昊泰 金琪周 金相煥 金德洙 朴永淑 柳基天 李活憲 宋昌銖 曹晉煥 宋雨憲 沈億守 李學才 金官炫 朱又祚 趙周龍 鄭甲德 朴德三 尹奇玉 尹化淑 宋周華 安浩宅 金堅鍾 孫在敬 李向運 張永起 李承元 金智永 李在桂 青永周 李虔中 金鍾洙 金秀潤 孔崇天 朴小福 崔順龍 金三在 宋相奎 姜信祚 宋基祚 鄭聖謨 柳根萬 林憲夏 金鍾燮 李黃雲 諸落遠 姜南植 朴元祚 宋七蘇 朴隨性 洪元明 金仁松 馬亮晳 朴慶先 姜在黃 鄭甲旋 金蘭燮 金錫基 姜鎬變

金平根 金斗彰 康譜沫 韓大奎 姜龍文 金正淑 鄭才用 金甲龍 鄭十明 李光東 黃昔吉 姜永奎 高順彥 金永喆 李文範 金成權 安濟壽 申東圭 李鍾浩 鄭顯玹 李蘭守 林尙熙 金鍾明 李在用 諸鍾福 黃錦龍 朴基權 李今祚 金坂植 郭芝弘 方榮連 金榮珠 孫文碩 金譜以 張性明 方應祚 崔奉斗 徐世述 洪秉休 朴萬國 白亨燮 黃萬洙 六二錢 七〇錢 八〇錢 一圓也 柳仁林 田鍾英 李來植 李熙殷 高南日 郭永喆 金仁三 洪元度 黃成仁 李秉祚 金其洪 趙鍾達 曹圭尙 趙寅龍 金宗烈 成甲光 崔昌珉 柳興三 二圓也 朴愛喆 三圓也 高禽玉 五圓也 洪元克 李在煥

李貴桂 金鳳大 申彥倫 韓俊錫 李丙生 孫吉瓚 張正奉 崔公述 金相根 洪元海 李已生 張錫生 姜泰興 李鍾植 朴日南 金順伊 李伯伊 姜道鎬 尹日善 劉在烈 吳今順 朴炳雲 李容淑 李起俊 趙英植 曹秉出 濟在根 鄭小鳳 林光植 權泰植 朴東洙 朴判世 李相貞 孫一守 李德允 鄭鐵文 盧道淑 全二厚 尹判祚 洪太先 千大洪 高泰興 韓炳玉 張九鉉 無名氏 李光烈 李景熙 鄭法濱 車鉉植 裵學伊 金在祚 兪在元 李後鎬 姜丁守 宋文順 兪亨伊 李龍喜 金太一 韓在鮮 趙獻尙 李成根 徐長五 安明珍 柳興鏞 孫在三 文金淵 韓相復 鄭壽男

金永植 鄭允洪 朴順鉉 黃滿水 金三俊 許德奉 金南連 金性燮 朴學先 李花松 金建浩 白春植 李在植 丁海平 黃仁柱 姜萬壽 吳東大 李宗烈 周台洪 李永福 朴皓奎 鄭庚鍾 張正义 李容謙 徐衛九 李仁祚 李桂同 裵善日 丁永述 吳鐵守 張命順 朴炳洙 李允鎬 黃得龍 李義權 朴義培 金辛珍 朴仁奎 權賢岩 吳元連 金東植 千洙龍 羅仁弘 金斗元 金壽萬 金鳳萬 朴英杜 金正洙 尹學龍 金鳳南 朴亨命 朴一象 金呂甲 申富坤 趙在鮮 李光變 金壯五 郡仕現 任在聖 安南錫 金野軒 李榮鎬 金學奎 金德生

曹聚浩 高泰珍 朴龍述 李錫基 金丁春 朴準玉 邊已玉 金炳泰 金元德 金好英 徐元花 白秀華 高日碩 裵鍾富 張鳳鶴 白永雨 趙鍾文 趙在浩 金相模 崔判綠 金容彥 李容謙 李鍾萬 金卜錫 高浴元 尹承夏 李宗喆 金順生 崔昌澤 李錫麟 任斗璽 朴那棟 李德圭 姜文中 殷琪柱 徐明局 李庚儀 朴宜陽 金德任 崔麗東 鄭斗善 趙昌業 崔光德 洪義範 辛益守 吳秀謙 金岩童 邊榮洙 高舜培 申玉璟 林東一 金在禧 趙興烈 李在源 趙東烈 李吉浩 閔東植 千聖旭 裵在弘 金錫述 金九萬 鄭正玉 劉南俊 愼宗元

京城府樂園町會經由追報

五錢 白貫永 李敬七 朴桂善一 一〇錢 共昌商會 朴慶先 朴玆愛 二〇錢 金班變 張錫東 姜流永 三〇錢 朴美相 崔東松 五〇錢 洪淳煥 尹天淑 崔永伊 車鍾松 鄭漢素 李貞淑 金基善 李鎬英 朴谷成 一、〇〇 金晟坤 沈熙澤 李喜根 崔成淵 金成根 孫台煥 李漢奎 二、〇〇 金水長 沈載厚 朴昌遠 金晟坤 三、〇〇 金鳳鉉 一〇、〇〇 金鷄社 林炳冀

▲一〇四、〇二 孔德町一區町會經由

五錢 洪性佑 尹滋海 金達濟 李泰平 宋鍾鉉 七錢 金榮一 林榮雲 一〇錢 宋泰燮 李命馥 陳鍾玉 尹德在 李根谷 金銀三 崔承宇 宋顯泰 一五錢 崔召史 金明煥 安道淳 崔鎭龜 金萬濟 二〇錢 金鍾云 朴文赫 金學根 李德三 李榮浩 黃点石 吳衡根 孫仁夏 池田丑之助 朴順山 李鳳煥 宋吉洙 斌 諸泰植 李殷弼 鮑修 朴貞勳 渡邊良太郎 福本淸 李祥儀 田中太郎 裵福伊 張元實 許擎山 宋海觀 趙炳勳 李鍾成 黃義年 鄭寅觀 趙炳吉 辛錫乃 崔仁淳 高學奎 梁奎煥 金明櫃 謝寶幸 韓孝順 金慶男 李順石 金福成 梁昌奎 朴俊文 趙恒元 閔憲植 李明三 金益周 白鳳興 李淑子 張成鎬 林泰順 趙榮煥 朴承奭 黃義敏 趙志衍 趙鍾九 張始煥 黃斌周 朴斗秉 朴昌宇 三〇錢 黃得周 申正鉉 朴允煥 方寬洙 尾崎ヤス 朴德煥 金容獻 尙在萬 徐內吉 尙東錫 朴明三 金鎬明 李和榮 宋學洙 金春祚 申萬成 金平淳 金行烈 李源常 四〇錢 金忠安 金基雲 五〇錢 金淳周 尙鳳九 吳主熙 善光堂藥房 咸應洙 崔承徽 安 基壹 李學出 石丸玄吾 柳原政 勇 金昌輝 林班相 金慶達 崔 遠權 金鳳來 張基部 尹福成 鄭 元淳 姜志道 金載熙 東洋硝子 工場 咸壽福 延圭大 田中七郎 德福倉作 李慶範 金濟熙 黃義信 梁君三 黃泰淵 張雖煥 林奎鎬 宋欽喆 宋龍燮 金成鍛

雙虹舞 【46】

方仁根 作 金奎澤 畫

사랑의승리 (五)

광훈이 열살되든해 정월에 광훈은 잇든집에서 쫏겨나와 갈데는업고 할수업시 평양가는달구지(마차)를타고 평양으로 도라갓다。그날 치워서 고생하든것은 지금것 이처지지 아니하엿다 손과 발과 코와 모두얼어 빠지는것 가탓다。평양와서도 메칠동안은 거지와가티 돌아다니다가 여관하인으로 음식점중머리로 굴러다니엇다。그러다가 우연히 은인을 만나서 공부를하게되엿다。그은인은 평양에서이름잇는 고지원(高志遠)이라는청년이엇다。그는 연설잘하고 사상가로 평양성중에서 모르는이가 업슬만한데 나히는 사십가량이지마는 수염을 길으키르서 사십세가량이나 되여 보엿다。그가 여관집에 잇는 어린광훈을보고 퍽 영리하게 생겻다고 자기집에 갓다가 두엇다。그리고는 보통학교에 입학을 시켜공부를 하게하엿는데 과연 성적이 조코 아이가 영리하고도 친척하여 지원은 광훈을 몹시 사랑하엿다。지원에게는 일곱살 먹은 딸이 잇섯는데 이름을 꿉실이라고 하엿다。

얼굴이 꿉게생겻다고 이름을꿉실이라고 지엇는데 과연꿉실은 출중하게 이쁘게 생겻다。지원은 광훈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꿉실에게 『오라버니』라고 부르게 하엿다。어린광훈은 이집에서 화대를받고 이집에와서 주인이 아버지처럼 사랑하고꿉실이 형제처럼 따르게될때 비로소 따뜻한 인정을 느끼고사는보람이잇섯다。그러나 꿉실의 어머니만은 그다지 광훈을 귀엽게 생각하는듯 하든것이 마음에걸림이엇다。꿉실의 어머니는 꿉실의 얼굴과가티 어엿븐이가 벼벼하지도못하고 그러라고 굴곳 광훈의 어머니는 남편과차용을 하는데 무슨까닭인지는어린광훈으로 알수업섯다。생활은 이집에서 무슨 돈으로 살아가는지 그런것은 물론알수가업섯다。

광훈이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사범학교로는 그해에 갈작이 평양공립의 어머니에게서

꿉실의아버지는집에서 도망가고 식구가사방으로 헤여지게되엇스니화비는를론보낼수업고 서로만날수도업다는 편지가왓다。광훈은그편지를받고얼마나 울엇는지 모른다。그보다도 더욱몹블공부할길이 업섯다。그러나 광훈은 우유배달 신문배달 별별짓을 다해가면서 고학으로 학교는 게속해다니엇다。일년동안은 아무소식이업더니 일년이지난 어느날 꿉실에게서 편지가 왓는데 아버지는 작년에 ○○사건으로 상해로 도망해버리고 그후에어머니는 자기를 기생으로 팔고 다른남자에게 셔집가서 산다는 슬픈 하소연을 한편지엇다。그리고 오라버니가 늘 그립다는 눈물겨운 편지엿다。그편지를보고는 광훈은더욱 슬퍼하엿다。그러나 꿉실에게서도 그다음에는 편지가 오지아니하엿다。그뒤에 꿉실과 그의아버지의 소식은 전혀끈치어버리엇다。그러나 한시라도 자기의 은인 고지원을 이저버린적은 업고 가여운 꿉실의 배롤라고 거츤세상바다를 헤매는 꿉실을 이저버린적이업엇다。친누이 동생과가튼 그가 기생이 되엇다는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짝막히엇다。더구나 어떠케되엇는지 살앗는지 죽엇는지 알길이업서답답하엿다。아버지와가튼 지원이 만리타향으로 가서 무엇을하고잇는지 주야로 걱정이되엇다。

광훈은 다시 외로울고 쓸쓸한신세가되엇다。부모친척하나도 업시 가련한고아로 넓은세상에 한물방울이로도돌러다니게되엇다。그래서 그는다시 어려서 동무삼은 버려지들과친하게되엇다。그것이 우연히 학교에서 동정을하게 부모되어 학교에서 쉬미도되고는 누구보다 뛰어나게되엇다。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교사로된다면서도 역시 그것을 노치아니하엿다。그러나 언제나그는 외로운 세상을 허적한 부모와 그다음은인과 누이동생을 생각하엿다。

더구나 오늘일생에 가장정사로운 혼인을하는데 함께즐기워할사람도업는 생각을하니 슬프지아니할수업고 그들의생각이간절하지아니할수업섯다。

광훈은 동산으로나려오면서 눈물을씻고 한숨을휘一내쉬엇다。